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울뜨레야

2013 1 · 2 · 3월호 | 157호

Contents

신년사

004 사랑과 슬기로움의 복으로 시작하는 신앙의 해
(임덕일 아마투스 신부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007 복음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신앙의 해를 삽시다!
(장주영 요셉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주간)
010 저는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믿습니다
(고재경 레오 신부 · 광주대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012 사랑을 실천하는 꾸르실료 네 번째 날을 살아갑시다
(임송 아론 · 광주대교구 꾸르실료 주간)
014 '신앙의 해'와 꾸르실리스따
(서준홍 마티아 신부 · 대구대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016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김예강 체칠리아 · 대전교구 주간)
018 굳은 신앙생활
(정효모 베드로 · 부산교구 주간)
020 이상을 실현하고 소명에 순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
(정성자 데레사 · 수원교구 주간)
022 하느님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을 생각하는 꾸르실리스따
(신동길 도미니코 · 의정부교구 주간)
024 광장
(정윤섭 요셉 신부 · 인천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026 새해를 맞이하면서
(윤성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제주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028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꾸르실리스따
(이흥순 즈카르야 · 춘천교구 주간)

기획특집

030 신앙의 해(Ⅱ) – 신앙쇄신의 여정인 '새로운 복음화'
037 롤료 개정에 대하여 – 롤료 개정의 배경
– '새 롤료' 정리 작업을 마치며

소개합니다

048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해외성소장학회」를 소개합니다

꾸르실료 단상

050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053 울뜨레야형 리더를 찾아서

060 끊임없이 베푸시는 예수님

생각하기

뛰어라 광장

064 '평신도의 종신서원' 같은 꾸르실료
066 새롭게 세운 나의 이정표, 꾸르실료
068 은총의 삶 자체였던 꾸르실료 3박4일
070 '의정부교구 여성 제16차 꾸르실료를 마치고
072 3박 4일의 천국 여행기

알아봅시다

076 꾸르실료 발상지를 찾아서

추천 도서

교구 소식

088 제18차 전국 주간단 회의
089 서울대교구
092 의정부교구
095 부산교구
097 수원교구

복음 묵상

098 1월 20일 (연중 제2주일) 요한 2.1~11
101 2월 17일 (사순 제1주일) 루카 4.1~13
104 3월 17일 (사순 제5주일) 요한 7.53 ~ 8.11
107 4월 21일 (부활 제4주일) 요한 10.27~30

가로세로 퀴즈

※ 지면관계로 교구탐방 기획특집글은 다음호(158호)에 게재됩니다.
꾸르실리스따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행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회장 장주영 요셉 | 대표 담당사제 임덕일 아마투스
121-883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97-1 TEL : 02)337-8588 FAX : 02)338-8848
홈페이지 http://www.cursillo.or.kr e-mail : cursillo@catholic.or.kr

사랑과 슬기로움의 복으로 시작하는 신앙의 해

임덕일 아마투스 신부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모든 꾸르실리스따 여러분과 그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덕담을 하며 '복을 받으라.'는 인사를 하곤 합니다.

'복을 받으라.'는 인사말은 같지만, 복의 내용과 받고 싶은 복은 모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재물에 대한 복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에 대한 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거나 회사에서의 승진을 원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요. 하지만 모든 복의 근본이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추구해야 하는 복은 '사랑에 대한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물에만, 건강에만, 사회적 지위에만 온통 관심을 쏟아도 그것들은 좀처럼 쉽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나 자신과 내 일에 대한 사랑,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복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재물에 대한 복도, 건강에 대한 복도,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복도 함께 따라오곤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랑의 복과 더불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뱀의 해인 올 해에는 '뱀이 가진 슬기로움에 대한 복'도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뱀을 악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슬기로운 동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마태 10.16)"고 당부하십니다. '슬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내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복음화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꾸르실리스따들에게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는 슬기는 순박함과 더불어 꼭 갖춰야 하는 덕목일 것입니다.

꾸르실리스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며 새로운 복음화에 정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서울대교구장님께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2013년 사목교서로 발표하시며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열정과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복음화를 실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먼저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야 한다는 것도,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가며 새로운 방법과 표현으로 복음화를 실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슬기로움' 이 있다면 말입니다.

신앙의 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새해도 밝았습니다.

주님께 '사랑의 복' 과 '슬기로움의 복' 을 청하며 꾸르실리스따로서의 삶을 잘 살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야겠습니다.

나의 삶의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쇄신합시다.

신심을 쌓고, 늘 깨어 공부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도적 활동에 임합시다.

팀회합과 울뜨레야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나를 성장시키며, 세상에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2013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복음화되어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신앙의 해를 삽시다!

장주영 요셉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주간

우리나라 꾸르실료는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을 지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세계제일의 꾸르실료운동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60년대 암울했던 시절,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무렵에 우리 땅에 꾸르실료가 전래되었습니다. 꾸르실료운동을 태동시킨 스페인의 그때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큰 은총입니다. 신앙의 폐허 속에서 시작한 운동이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평균 4천 명 가까운 꾸르실리스따를 꾸준히 배출한 것은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총이며 기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인구대비 10%가 넘는 500만 신자의 공동체로 성장한 것은 17만 명 꾸르실리스따들의 기도와 사도적 활동이 밑거름으로 한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깊숙이 꾸르실리스따의 봉사와 사랑의 숨결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잊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꾸르실료운동을 세계에 알려 줄 때가 되었습니다. 대양을 헤쳐 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선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격랑의 바다를 건너 조선 땅의 양들을 위해 쪽박선에 몸을 실으셨던 것처럼, 필리핀의 낯선 형제들이 기후와 물이 다른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꾸르실료운동을 함께 하자고 손을 잡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1년에 100차례 이상 꾸르실

료를 실시하고 5천 명이 넘는 새로운 꾸르실리스따가 탄생(2012년 통계)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우고, 성체 안에 계신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고 사도가 되겠노라 굳게 서약을 하게 하는 우리의 훌륭한 프로그램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 나라의 정서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꾸르실료운동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꾸르실료운동에 동참하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꾸르실료운동의 정신대로 살고 꾸르실료운동의 사목활동 방법에 따라 우리 삶의 현장을 복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시작된 '신앙의 해'는 금년 11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가족 모두 '신앙의 해'의 정신과 교구장님의 사목 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해를 살고자 다짐하도록 합시다. 그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1.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성경 읽고 묵상하기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실천표에 따라 기도하기
3.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교리서와 교회문헌 공부하기, 영적독서하기
4.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매일 미사 참례하기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꾸르실료해외성소장학회 발족

사무국은 여러분의 2013년도 꾸르실료운동의 실천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새해 시작부터 '신앙의 해'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1월 8일부터 시작하여 4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교구 꾸르실리스따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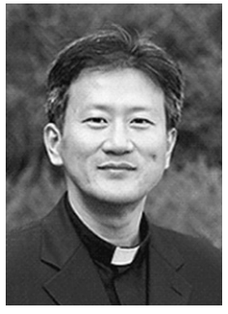
또한 새로운 복음화 실천사업으로 '해외성소장학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목말라하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 그들을 돌보아줄 목자가 없는 불우한 이웃 국가들의 신학생을 서울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유치하여 사제로 양성해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마음과 하느님 사업의 최우선 과제인 사제 양성에 참여함으로써 이 세상을 복음화 하는데 실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꾸르실리스따 여러분, 꾸르실료운동의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베풀겠다는 마음과 삶 속에서 증거하는, 다시 말해 복음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신앙의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믿음의 문」 2항)을 마음껏 누리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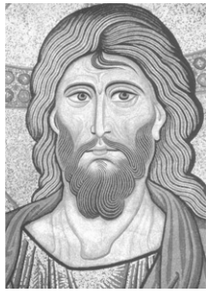
고재경 레오 신부 · 광주대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올해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를 '신앙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해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꾸르실료 체험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 뵙고 내 안에 기쁨이 가득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께서는 꾸르실료 기간 동안에만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첫 시작부터 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내 눈과 귀가 닫혀있었기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동안 그분을 뵙고자 하는 노력과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러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망은 주님을 뵙게 만듭니다. 마르코 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르티매오라는 소경은 자신에게 광명의 빛을 가져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분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옆을 지나가실 때 주변 사람들의 만류나 핀잔,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10,48). 우리가 꾸르실료 체험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 뵙게 된 것도 바르티매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간절함은 꾸르실료 체험기간이나 신앙의 해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계속해서 뵈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뵙고 빛을 보게 된 바르티매오가 기쁨에 가득차 온 동네 여기 저기 다니며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며 신앙고백을 하였듯이, 우리도 또한 꾸르실료를 통해 주님과 만나게 된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며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빛과 함께(De Colores)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차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꾸르실료 네 번째 날을 살아갑시다

임송 아론 · 광주대교구 꾸르실료 주간

새해는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과 사랑을 가득 안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사랑의 실천방법으로 네 가지 다짐을 합니다. 수년전 어느 피정 강론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인데 매년 충분히 지켜지지는 않지만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친절하고자 합니다. 친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 하며 무슨 속셈이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친절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직하고자 합니다. 정직하면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오히려 속이려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직하고자 합니다.

셋째,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합니다. 확실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여 뜻한 바를 이루게 되면 의외로 가짜 친구들이 생기고 진짜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합니다.

넷째. 행복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서로의 행복을 바라고 꿈을 이루기를 기원해 주면서도 정작 상대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행복하고자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일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관계이며 나아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꾸르실리스따의 삶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박4일을 마치고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네 번째의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스트 꾸르실료(꾸르실료 이후의 삶)라고 말합니다.

20세기를 모더니즘의 시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에 빠져있고 절제 없는 물질의 풍요에 쌓여있어 절대적 관념이 무너져가고 문화와 종교가 혼동되어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은 꾸르실리스따의 삶을 살아나가게 할 것입니다. 포스트 꾸르실료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친절과 정직으로 뜻을 이루고 행복한 네 번째의 날을 살아갑시다.

데꼴로레스!

‘신앙의 해’와 꾸르실리스따

서준홍 마티아 신부 · 대구대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2011년 10월 11일 자의 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을 발표하면서 ‘신앙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신앙의 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인 2012년 10월 11일 시작해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막을 내립니다. 신앙의 해는 교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에 대한 신앙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모으게 하며,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새롭게 돌아서고 신앙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선포됐습니다. 신앙의 해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의 세상에서 증언하고, 신앙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해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교회와 함께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례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을 **증언하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주교회의 자료)

교회는 신앙의 해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만남, 고백, 기념, 증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꾸르실리스따가 지녀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꾸르실리스따는 3박 4일의 꾸르실료를 통해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3박 4일 동안 미사와 기도와 롤료와 노래를 통해 전에 몰랐던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하느님과 만남을 체험하고 난 후 꾸르실료가 끝날 무렵 **“저는 그리스도님의 은총만을 믿습니다.”**라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꾸르실료 마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사생활 특히 미사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기념했습니다. 자신이 실천표에 기입한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은총의 시간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울뜨레야를 통해 주님을 증언했고,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꾸르실리스따가 한 사랑의 실천은 바로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해’를 맞이한 꾸르실리스따는 특별히 다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르실료 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이상, 순종, 사랑으로 신심, 공부,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면 신앙의 해를 제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실천표에 기입한 대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 신앙의 해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성사생활에 충실하면서 울뜨레야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의 해를 더 빛낼 수 있습니다. 주위의 신자들을 꾸르실료에 초대함으로써 신앙의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해’는 꾸르실리스따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는 은총의 해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7,5)

김예강 체칠리아 · 대전교구 주간

데꼴로레스!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꾸르실리스따 형제 ·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하느님 은총 안에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교회에서는 “신앙의 해”가 선포되었고,

우리 대전교구는 29대 꾸르실료 사무국 주간단이 새로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제가 29대 대전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주간이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구 꾸르실료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역대 주간님과 15,000여 꾸르실리스따 형제 · 자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꾸르실리스따 형제 · 자매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은총만을 믿으며 새로운 지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7,5)

우리는 3박4일 꾸르실료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실천표를 작성하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망각의 존재이기에 3박4일의 체험과 결심들은 서서히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를 신앙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신앙의 해는 아시다시피 성경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교회와 함께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례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을 증언하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꾸르실료 운동이 추구하는 목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천표대로 실천한다면 별도의 신앙의 해가 필요 없겠지요.

사랑하는 꾸르실리스따 형제 · 자매 여러분!

새해를 맞아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 **공부, 신심, 활동 즉 실천표를 꼭 실천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굳은 신앙생활

정효모 베드로 · 부산교구 주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세속의 늪에 깊숙이 빠져서 주님을 등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키워 나가는 것이고 등을 돌리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등을 돌리는 신앙인들은 예수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칭찬 받기만을 원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주위에서 조금만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잘 하던 봉사생활도 하지 않는 신앙인들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오직 자신만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만한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신앙인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은 강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합니다.

교황성하께서 '신앙의 해' 제정 자의교서 「믿음의 문」 7항과 10항에서 "신앙은 오로지 믿으면서 자라고 더욱 강해지며, 신앙은 주님과 더불어 살고자 그분과 함께 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꾸르실리스따 형제 · 자매 여러분!

우리 꾸르실리스따는 주님을 선택했었기에 3박4일의 꾸르실료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이 자라고 더욱 강해지는 밑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상, 순종, 사랑이라는 세 덕목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우리 꾸르실리스따들은 세 덕목을 더욱 새기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이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해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꾸르실리스따가 되도록 나아갑시다.

꾸르실리스따 여러분들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데꼴로레스!!!

이상을 실현하고 소명에 순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

정성자 데레사 · 수원교구 주간

사랑하는 꾸르실리스따 가족 여러분!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으며 사랑하는 꾸르실리스따 가족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데꼴로레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를 조용히 뒤돌아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구 영성관 건립에 혼신을 다한 꾸르실리스따들 모두 한마음 되어 교구 영성관을 건립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봉사자들과 함께 교육의 첫 시작을 선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안정되어 가는 모습 속에 16차례의 교육과 교구 울뜨레야 그리고 6개 대리구 울뜨레야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낌없이 헌신하신 교구 임원, 대리구 간사님을 비롯한 지구와 본당 임원진과 봉사자, 그리고 꾸르실리스따 가족 모두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으며,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마태 25,21)라는 부제에 부합한 삶을 살아주신 우리 꾸르실리스따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수원교구 설정 50 주년의 선포식에 걸맞는 사도되어 '희망의 땅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적 쇄신을' 향해 초석을 다져 나를 회심하고 재정립하며 내적으로 살찌워 그 충만함이 외적으로 발산되기를 빕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상을 실현하고, 부르심과 주어진 소명에 순명하며, 기쁨으로 일관된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께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꾸르실료 운동의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되어 기도하고 공부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쇄신을 통해 내 자신이 복음화 되어 이웃에게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참 꾸르실리스따인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주님께 그저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며 (루카 17,10) 신앙의 나이테를 늘려가는 겸손한 꾸르실리스따가 됩시다.

존경하는 꾸르실리스따 여러분!

아무쪼록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우리 꾸르실리스따 가족 모두 주님의 크신 축복 속에 지향하시는 소망 이루시고 기쁨과 평화 가득하시기를 빌며 사랑합니다.

데 꼴로레스! 데 꼴로레스! 데 꼴로레스!

하느님나라 건설을 위한 사명을 생각하는 꾸르실리스따

신동길 도미니코 · 의정부교구 주간

사랑하는 꾸르실리스따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사무국의 모든 행사를 모두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그러하듯 새해에 세운 굳센 각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디어져 낡은 삶의 반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의정부교구 꾸르실료가 2005년 서울대교구로부터 분리되어 창립된 지 벌써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정부 교구 꾸르실료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막내 교구에서 3,000여 명이 넘는 꾸르실리스따를 지닌 큰 가족으로 발전했습니다. 꾸르실료 창립 당시 사무국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였지만 송추 곁방살이를 거쳐 이제는 이기헌 베드로 주교님의 큰 배려로 교구청에 작지만 아담한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교구 꾸르실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꾸르실리스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에 힘입은 것입니다.

금년 10월 3일에는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라."(마태 5,16) 라는 주제로 의정부 신흥대학교 체육관에서 제3차 교구울뜨레야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구 울뜨레야를 계기로 꾸르실료가 일치와 사랑으로 세상의 복음화에 밑거름이 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꾸르실리스따 여러분들께서는 5년 만에 개최되는 우리교구 큰 잔치인 제3차 교구울뜨레야에 교구의 모든 꾸르실리스따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기도와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빛과 함께, 빛을 향하여, 빛을 노래하는 〈데꼴로레스〉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현존과 사랑을 가까이할 때 교구 울뜨레야 주제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느님나라 건설을 위한 사도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꾸르실리스따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꼴로레스!

광장

정윤섭 요셉 신부 · 인천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예전에 일주일간 로마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회의로 매일 로마시내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서 바티칸을 오고간 적이 있었다. 이른 아침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전 광장을 가로질러 시노드홀을 향했었다. 그리곤 해가 떨어진 광장을 다시 가로질러 숙소로 돌아오곤 했었다. 또한 지루하고 알아듣기 힘든 발표 내용들로부터의 탈출과 해방감을 찾고자 점심시간이면 바티칸 광장을 서너 바퀴 돌아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때의 광장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연출하곤 했다. 기본적으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들었고 줄을 섰으며 그룹별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엔 그 광장을 가로질러 각자의 일터로 학교로 움직이는 부산한 발걸음도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거대한 돌기둥에 기대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또 한번은 멋진 제복의 악대들이 웅장한 기둥아래 음악을 연주하면서 지나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아 놓기도 했었다.

광장 한가운데 높이 솟은 탑은 꼿꼿한 자세로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손님들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광장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두 곳의 분수대는 잔잔히 여유와 운치를 보태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이신 베드로 대성당은 이 모든 것을 두 팔 벌려 품어 앉고 있었으며, 성인 성녀들은 각 기둥에 올라서서 광장과 이곳을 오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해가 가고 달이 가도록 축복해 주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빽빽한 골목길을 지나 그때의 그 광장에 서면 마치 비좁은 물길을 빠져 나와 넓은 바다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그 넓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라는 나의 광장을 어떻게 채울까 생각했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엔 내 하루의 광장을 가로질렀던 일들을 다시 되새김 하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 까치발을 들어 저 앞을 보니 벌써 2013년이라는 광장이 보이기 시작한다. 발걸음을 옮겨 들어갈 저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견했던 또는 예견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이 오가면서 광장의 모습도 변화할 것이고, 내가 찾을 사람과 나를 찾는 사람도 여러 모습으로 이 광장을 찾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 변화되고 경험되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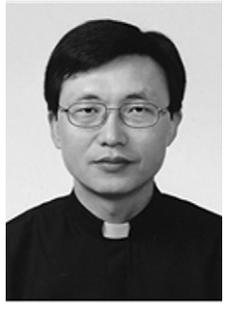
하느님은 2013의 광장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다.

꾸르실리스타들이여!!!

빛과 함께 그 광장으로 들어가자!!! “데꼴로레스”

새해를 맞이하면서

윤성남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제주교구 꾸르실료 담당사제



몇 년 전 어떤 신부가 3박 4일의 꾸르실료에 들어왔습니다. 롤료도 열심히 듣고 그림도 잘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체험발표 시간이 되어 체험담을 듣게 되었는데 마냐니따 노래를 언급하면서 아버지가 평소에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어떤 노래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버지는 말도 안 해 주고 악보를 구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청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그 노래를 듣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꾸르실리스따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 자녀 가슴에도 십자가 표적 달고 크거든 되어다오 훌륭한 꾸르실리스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부의 아버지는 평소에 꾸르실리스따로서 훌륭히 살았고 아들 신부가 꾸르실료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올해를 '신앙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복음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신앙의 전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유를 내세우며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까?"라고 부모에게 대들면 부모는 항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당에 가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교리공부보다는 학교공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신앙교육은 뒷전에 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인들은 매 주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탈무드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자녀들에게 전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반면 우리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6번째 롤료 '공부'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 교리, 공의회 문헌, 신앙서적 등을 공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나부터 복음화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복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친애하는 꾸르실리스따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신앙의 해'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기점으로 하여 내 자녀들도 반드시 십자가 표적을 달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총과 복을 가득히 받는 해가 되시길 빌면서 데꼴로레스를 외쳐봅니다.

데꼴로레스!!!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꾸르실리스따

이흥순 즈카르야 · 춘천교구 주간

바쁘다고 소리치며 숨고르기도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2012년이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지난 3월. 부족함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제가 춘천교구 꾸르실료 운동의 기수로 불리움 받아 어설프게 달음박질하면서 주간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공부해 오다보니 배우고 실행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가슴에 수북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크리스천 생활의 꾸르실료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뛰어주신 공경하올 김운회 루카 주교님과 교구의 모든 신부님, 본당 울뜨레야 간사님, 교구 봉사자님들, 그리고 3박4일의 꾸르실료 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꾸르실료 운동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아낌없이 바치는 봉사자들의 노력에 의해 결실을 맺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르실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삶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은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자신을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꾸르실리스따라면 시기심과 이기심과 경쟁심을 버리고 참된 봉사자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의로 하는 일은 복음을 수호하는 일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황 성하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총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나는 나 자신만을 드러내려는 비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신앙을 통절한 마음으로 성찰하면서,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참주인으로 고백하며 기념하면서 증거하는 꾸르실리스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꾸르실리스따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2013년 한 해가 저나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축복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De colores!!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필리 1, 20-22)

신앙쇄신의 여정인 '새로운 복음화'

지난 2012년 10월 11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일이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발간 2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신앙의 해'가 개막되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의교서 '믿음의 문'을 통해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복음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신앙인으로서, 꾸르실리스따로서 '신앙의 해'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이에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홍보부는 '신앙의 해' 기획특집 2번째로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기획특집이 모든 꾸르실리스따에게 '신앙의 해'의 의미를 되돌아봄으로써 3박4일의 체험을 통해 품었던 '세상 복음화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편집자 주〉

'새로운 복음화' 개념의 이해

'새로운 복음화'라는 용어는 1983년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남미 선교 50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제19차 총회 연설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쓴 표현이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연설에서 "500년에 걸친 복음화를 기념하는 일은, 여러분이 주교로서 자기 사제들과 신자들과 함께 복음화를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 충만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분명 이 사명은 재복음화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사명입니다. 곧 그 열정과 방식, 그 표현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복음화' 이전에는 '선교', '복음화'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선교(missio)'는 그리스도인이 만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및 내적 쇄신과 변화, 하느님과의 친교 및 이웃과의 친교와 나눔 등의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폭넓은 개념이었으나 16세기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확장을 꾀하는 제국주의와 결합되어 유럽의 문화를 비유럽권에 이식하는 일과 동일시되면서 선교는 그 의미가 축소 왜곡되었다.

서구 문화의 일방적인 이식형태를 지녔던 이러한 선교 방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반성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역사적으로 축소 왜곡된 '선교' 개념보다 '복음화'라는 단어를 선호하게 되었다.

'복음화(evangelizatio)'의 개념은 교회가 선포자의 능동적 역할만이 아니라 청중과 제자로서의 수용적 역할을 수행해야함을 강조하면서 '만민 선교'의 사명과 동시에 '교회 자신의 복음화'의 사명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선포의 개념을 넘어 "복음화는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계획에 반대되는 인간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방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데 있다"(『현대의 복음선교』, 18-19항)고 선언하면서 토착화와 사회복음화의 영역까지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삶의 증거로 선포되어야 하며 신앙과 삶이 일치된 복음적 생활 그 자체가 복음화 활동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복음화'(nova evangelizatio)'는 급변하는 사회 변동과 그 여파로 종교적 무관심과 세속주의와 무신론 등의 영향으로 신앙의 위기를 체험하고 있는 현실

을 반영한 새로운 차원의 복음화로 등장했다. 내용적으로는 복음화의 개념을 포함하지만, 새로운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맞춰 이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식, 새로운 표현"으로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새로운 복음화는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 이러한 문화적 풍토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가 자신에게 하는 호소이며 요청이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자신의 영적 힘을 모으고, 이 새로운 문화적 풍토 안에서 분명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다. '복음화'가 내용(what)에 관한 물음이라면, '새로운 복음화'는 방법(how)에 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한 분야들 : 오늘날 신앙 위기의 배경

'신앙의 해' 개막행사 형식으로 개최된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의제개요」(Lineamenta) 6항에서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한 분야를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6가지 영역은 오늘 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 신앙 위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1) 문화 분야 (세속주의)

반(反)그리스도적이고 반(反)종교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지만, 한층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이 배제된 사고방식을 부추긴다. 개인의 의식과 삶 속에서 하느님과의 관련성을 약화하고 부정함으로써 종교가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신앙의 해 개막행사의 성격으로 개최된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2) 사회 분야 (이민, 세계화에 따른 민족들의 혼재)

대규모 이주 현상이 빚어지면서 심각한 문화혼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화혼재 현상은 삶의 기초와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들이 뿌리째 흔들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화'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세계화 현상의 긍정적 · 부정적 면을 식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

개인의 필요에 의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거나, 인간관계나 사회적 유대에서 감정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성찰이나 침묵과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들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줄어들거나 상실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이 파괴되며,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4) 경제 분야

개발도상국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원의 접근과 분배는 물론이고 피조물에 끼친 손해로 남반부와 북반부 사이에 불균형이 커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경제 위기는 천연 자원은 물론 인적 자원의 사용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5) 과학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혜택을 날마다 경험하며 점점 과학에 대한 의존이 커짐에 따라 과학기술은 새로운 우상, 새로운 종교가 될 위험이 있다. 기술이 그 자체로 일종의 철학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앎(gnosis)'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이비 종교 집단이 종교적 실천을 부요와 순간적 만족만을 쫓는 병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6) 정치 분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몰락으로 서방세계의 분열은 끝났지만, 이슬람이나 아시아 같은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주체들이 국제무대에 등장하여 완전히 새롭고 유례없는 상황을 낳았다. 이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으면서도 많은 위험이 따르고 지배와 권력에 대한 새로운 유혹이 산재해 있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노력

-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신설,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개최, 신앙의 해 선포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이러한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촉발시키는 많은 내부적 · 외부적 원인과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 모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원동력으로 신앙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화의 사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황청에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신설,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제로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개최, 신앙의 쇄신과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신앙의 해' 개막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새로운 복음화를 통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쇄신의 여정이다.

'새복음화촉진평의회'의 신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0년 9월 21일 교황 교서 「언제나 어디서나」(Ubicumque et Semper)를 통하여 '새복음화촉진평의회'를 신설하였다. 이 평의회는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주제를 먼저 성찰 · 연구하고, 여러 개별교회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새로운 복음화 사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복음화의 도구로 현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활용을 연구 ·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다.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개최 :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2012년 10월 7일부터 '신앙의 해' 개막행사의 성격을 가진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The New Evangelization for the Transmission of the Christian Faith)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성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 거행된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개막미사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개막미사를 통해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화(聖化)를 향한 보편적 부르심'을 통해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새로운 복음화'는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교적 삶의 지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회복은 개인과 가족, 사회생활에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줄 은총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신앙의 해' 선포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의교서 '믿음의 문'을 통해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정을 더욱 북돋우기 위하여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에 교회를 부르시어 늘 새로운 명령으로 교회에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기쁨과 신앙 전수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음화를 향한 교회의 더욱 힘찬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시며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황청 신앙교리성으로 하여금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 권고를 담은 공지'를 마련하게 하여 보편교회 차원, 주교회의 차원, 교구 차원, 본당 · 공동체 · 운동 · 단체 차원의 사목적 권고사항을 제안함으로써 신앙의 해를 보다 실천적으로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신앙의 해가 꾸르실리스따들에게 던지는 질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쇄신과 새로운 복음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신앙의 해를 선포하며, 신앙의 해 개막행사 형식으로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열린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우리 자신을 복음화하고 회개를 향해 나아가며 세상에서 복음화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회의를 마치고 주문한 '자신의 복음화와 그를 통한 세상의 복음화'는 꾸르실료 운동이 추구하는 이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꾸르실료 3박 4일을 보내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그리고 그리스도께 약속했던 삶! 그 삶을 잘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의 해를 가장 잘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신앙의 해'는 어쩌면 꾸르실리스따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은 신앙의 쇄신과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홍보부

롤료 개정의 배경

심윤식 요한보스코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부주간

꾸르실료 한국협의회는 지난 8월에 개최된 제17차 주간단 회의에서 2013년도부터 전국 공통으로 새롭게 개정된 롤료를 사용하기로 결의한 바 있어, 이 글을 통해 롤료 개정의 배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꾸르실료 운동은 1967년 5월 4일 미국인 케빈 오도넬 형제와 에드몬드 가이모 회장을 포함한 12명의 필리핀 꾸르실리스따 형제들의 도움으로 21명의 남성 꾸르실리스따가 배출되면서 시작되었다. 1차 꾸르실료에서 사용된 언어는 영어로서 롤료 대본도 당연히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후 제3차 남성 꾸르실료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꾸르실료가 진행되었으며 롤료는 1,2차 때 사용된 영어 롤료 대본을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한국어 롤료 원본은 현재 보존이 되어있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에게 꾸르실료를 전해준 필리핀이 1963년도에 미국으로부터 꾸르실료를 들여왔으며, 미국은 1957년도에 스페인으로부터 꾸르실료를 전수 받았기에 그 당시 우리가 받은 꾸르실료의 롤료 제목과 내용은 초기 스페인에서 사용한 롤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단,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로 사용된 단어들이 일부 변형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하겠다.

2006년도에 개정된 미국 꾸르실료 사무국의 "The Cursillo Movement's Cursillo Manual" 서문에는 1999년도에 만든 '3-Day Manual'을 개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998년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성하께서 "모든 수도회나 교회의

단체들은 기본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창설 당시의 카리스마를 찾으라."고 하시며, "창설 당시의 카리스마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성별하여 가톨릭교회에 독특한 공헌을 하게 하는, 성령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this Manual takes us **back to the original** titles and outlines of the rollos that came **from Mallorca** during **the first Cursillo** in Waco, Texas in 1957."

서문에 적힌 이 문장은 미국 꾸르실료가 2006년에 개정한 롤료는 1957년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꾸르실료를 도입했을 때의 롤료로 돌아갔음을 알려 준다.(표 1 참조)

그러면 왜 미국 꾸르실료 사무국은 2006년 개정판을 내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한 번 살펴보자. 1949년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시작한 꾸르실료 운동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제3차 세계대회가 개최된 1972년도에 벌써 50개국에 전파되어 2백만 명이 넘는 꾸르실리스따가 배출되었다. 꾸르실료 발상지인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대회에서 각 국가에서 모인 대표자들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꾸르실료 운동의 순수성을 계속 간직하고 운동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모든 국가와 운동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정신을 적절하게 설명해 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여 책을 펴내기로 결의한다.(기본사상 초판 서문에서 인용)

이렇게 해서 1974년도에 "The Fundamental Ideas of The Cursillo Movement" 초판이 발간된다. 이 초판 기본사상에 나와 있는 롤료의 제목을 살펴보면 (표 1)의 롤료 제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참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판 기본사상 작성에 오스트리아, 브라질, 스페인, 미국, 멕시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7개국 대표가 참가했고, 이 회의의 coordinator가 '베네수엘라' 대표였음에서 그 이유를 어림잡을 수 있겠다.

기본사상이 출간된 1974년도 이후에 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후속 조치로서 '현대의 복음 선교', '평신도 그리스도인', '가정공동체', '현대의 교리교육' 같은 중요한 사도적 권고들이 나오고,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성하는 '노동하는 인간', '인간의 구원자' 같은 회칙을 반포하시면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시고, 또한 과학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나타난 세속주의와 종교적 무관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음화를 요구하시게 된다. 이에 따라 평신도 사이에서 여러 가지 쇄신운동이 태동하게 되었다. 꾸르실료운동도 쇄신과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절박한 요청을 피하지 않았다. 1988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대회에서 16년 만에 만난 대표들은 기본사상을 현대화하기로 결의하고 1990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감안한 1차 개정판을 발간하게 된다.(꾸르실료운동의 기본사상 개정판 서문에서 인용)

이 1차 개정판에서 롤료의 제목과 개요가 또다시 변경된다.(표3 참조)

이 개정판 작성의 coordinator도 베네수엘라 대표인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미국의 1999년판 '3-Day Manual'은 1990년도에 발간된 기본사상의 1차 개정판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1차 개정판에 근거한 매뉴얼로 꾸르실료를 진행하면서 많은 내부적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많은 토론을 통해 매뉴얼의 개정(Original로의 복귀)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에는 1998년에 말씀하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요한바오로 2세 교황성하의 권고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꾸르실료는 초창기에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꾸르실료를 진행해 오다가 1985년에 이르러 한국협의회 주관으로 18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동안 각 회장별로, 또한 교구별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변형되어 각각 다르게 진행하던 회장 독본과 롤료의 내용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기로 한다. 이때에 롤료의 수가 15개에서 14개로 줄어들었다. 15번 '꾸르실료 이후의 꾸르실리스따'의 내용과 14번 '안전보장'의 내용을 통합하여 14번 '꾸르실료 이후의 생활'로 바꾼 것이다.(표 4 참조)

이 후 한국협의회는 서울대교구 주관으로 1988년에 기본사상 초판 번역, 1990년 미국 꾸르실료 지도자 교본 번역, 1996년 기본사상 1차 개정판을 번역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1999년판 미국 꾸르실료 매뉴얼을 입수하게 되고 이 매뉴얼이 기본사상 1차 개정판 내용을 반영한 것을 알고 번역에 착수하여 2002년부터 새로운 롤료를 사용하게 된다.(표 5 참조) 이 롤료가 지금까지 사용한 롤료이다.

이 롤료를 사용하던 중에 롤료가 너무 문어체라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교수부에서 주도적으로 롤료의 운문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새롭게 다듬어진 롤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순간에 대표담당사제이신 임덕일 신부님이 2010년에 개최된 북미주 한인 꾸르실료 대회에 초청을 받고 다녀오시면서 2006년판 미국 "The Cursillo Movement's Cursillo Manual"을 갖고 오시게 된다. 신부님은 "미국은 기본을 지키고 있는데 왜 한국 꾸르실료는 이렇게 변형되었느냐?"하시며 우리도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시고, 2011년 2월 한국협의회 총회 때 롤료 제목의 변경을 제안하게 된다. 그 당시 제안을 들은 몇몇 교구 주간님들이 임신부님이 제안한 제목이 기본사상과 차이가 있음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 당시에는 2005년 브라질 상파오로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대회에서 기본사상의 2차 개정이 제안되어, 4개 지역(APG, NACG, GECC, GLCC)의 대표들이 모여 기본사상의 2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한국 협의회는 일단 한국 꾸르실료의 통일된 의견(표 6 참조)을 기본사상 2차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2011년 7월 미국 LA에서 개최된 OMCC 기본사상 개정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3박4일 꾸르실료에서 롤료에 의해 선포되는 주제와 내용은 전 세계가 동일하여야 하나, 각 롤료의 제목과 text는 각 국가 꾸르실료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합의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협의회가 롤료의 제목을 기본사상 1차 개정판과 다르게 바꿀 수 있게 되어,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롤료 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차 개정될 기본사상은 2013년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대회에 보고 후 확정될 예정이다.

	표 1	표 2	표 3
제목	미국 2006년 매뉴얼	기본사상 초판(1974년)	기본사상개정판(1990년)/미국 1999년 매뉴얼
환영식	Preliminary Rollo	the opening talk	the opening talk
제1묵상	Know Yourself	Know Yourself	Know Yourself
제2묵상	The Prodigal Son	The Prodigal Son	The Merciful Father
제3묵상	The Three Glances of Christ	The Three Glances	The Three Glances
1번 롤료	Ideal	Ideal	Ideal
2번 롤료	Habitual Grace	Grace	Grace
3번 롤료	The Layperson in the Church	The Layman in the Church	Laity as Church in the World
4번 롤료	Actual Grace	Faith	Faith
5번 롤료	Piety	Piety	Holiness
제4묵상	The Person of Christ	The Figure of Christ	The Figure of Christ
6번 롤료	Study	Study	Formation
7번 롤료	Sacraments	Sacraments	Sacraments
8번 롤료	Action	Action	Evangelization
9번 롤료	Obstacles to a Life of Grace	Obstacles to a Life of Grace	Obstacles to the Life of Grace
10번 롤료	Leaders	Leaders	Leaders
제5묵상	Christ's Message to the Cursillista	Christ's Message to the Cursillista	The Message of Christ to the Cusillista
11번 롤료	Study of the Environment	Study and Christian Leavening of the Environments	Study and Evangelization of Environments
12번 롤료	Life in Grace	ChristianLife	ChristianLife
13번 롤료	Christianity in Action	ChristianCommunity	Christian Community
14번 롤료	Total Security	Group and Ultreya	The Group and The Ultreya
15번 롤료	The Cursillista Beyond the Cursillo		

	표 4	표 5	표 6
제목	1985년 한국	2002년 한국	2013년 한국
환영식		개회사	개회사
제1묵상		너 자신을 알아보라	너 자신을 알아보라
제2묵상		잃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
제3묵상		그리스도의 세 눈길	그리스도의 세 눈길
1번 롤료	이상	이상	이상
2번 롤료	생명의 은총	은총	생명의 은총
3번 롤료	교회 안의 평신도	세상 안의 교회인 평신도	교회 안의 평신도
4번 롤료	도움의 은총	믿음	도움의 은총
5번 롤료	신심	성덕	신심
제4묵상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6번 롤료	공부	크리스천 형성	공부
7번 롤료	성사	성사	성사
8번 롤료	활동	복음화	사도적 활동
9번 롤료	은총 생활의 장애	은총 생활의 장애	은총 생활의 장애
10번 롤료	봉사하는 지도자	크리스천 리더	크리스천 리더
제5묵상		꾸르실리스따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꾸르실리스따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11번 롤료	환경연구	환경의 연구와 복음화	환경의 연구
12번 롤료	은총안의 생활	크리스천 생활	크리스천 생활
13번 롤료	활동하는 교회 공동체	크리스천 공동체 개발	활동하는 교회 공동체
14번 롤료	꾸르실료 이후 생활	그룹재회와 울뜨레아	꾸르실료 이후의 삶
15번 롤료	(안전보장)		

‘새 롤료’ 정리 작업을 마치며

오현희 세실리아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교수부장

2012년 시작과 함께 맡겨진 새로운 숙제,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2012년 끝자락에서 이제 마무리 짓게 되었다.

꾸르실료에서 롤료란 무엇일까? 꾸르실료에서 롤료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빛을 밝혀 주는 촛불이며, 3박 4일 동안 멋있는 하느님의 집을 짓기 위해 14개로 잘 짜인 튼튼한 뼈대일 것이다. 이번에 새로운 롤료를 정리하면서 먼저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 동안 여러 번 봉사를 하면서도 롤료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오직 내가 맡은 롤료를 이해하는 데에 급급하여 전체 롤료를 꿰뚫어 본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는데 이번 작업을 통하여 롤료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된 것 같기 때문이다. 특히 ‘신앙의 해’ 5가지 실천이 꾸르실료 3박 4일에 녹아 있는 것 같아 남다른 마음으로 지난 1년간의 작업을 되돌아본다.

롤료 개정의 과정

우선 2006년에 새로 개정 된 롤료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롤리스따들에게 통일된 롤료 대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차적으로 영어로 쓰인 롤료 매뉴얼의 번역본이 작성되었다. 그러고 나서 최종 대본으로 정리하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20여 명의 봉사자들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전체적으로 롤료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각 롤료에 따라서는 쓰인 관점에 따라 달라진 부분도 있었고, 영어 롤료 매뉴얼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문어체 표현으로 내용 전달의 어려움이 느껴졌다. 또 롤료 발표 시간의 제한에 따라 많은 분량의 원문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우리에게 적합한 문장 및 어휘, 구어체 표현을 위해 십여 차례의 수정 및 교정 작업을 거치게 되었다.

먼저 번역본을 넘겨받은 후 각 롤료 별로 남 · 녀 롤리스따를 배정하여 사전 작업을 한 후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사흘에 걸쳐 평신도 롤료 8개를 정리, 발표하는 과정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2011년 전국 꾸르실료 교수부장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롤료 제목 중에서 몇 개는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12번 롤료는 영어 원본과 같이 13번 롤료와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2012년 5월 전국 꾸르실료 주간단 회의에 ‘롤료 개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각 교구 꾸르실료의 롤료 통일, 변경된 롤료 제목 확정, 롤료 12번과 롤료 13번의 순서 교체를 합의하였다. 그 후 각 교구에 롤료 대본을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안동교구의 수정 작업과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님(불광동 성당 주임)의 감수를 마쳐 7월에 롤료 개정 작업을 잠정적으로 완료하였다.

서울대교구에서는 먼저 8월 남성차수부터 11월 여성차수까지 총 8회에 걸쳐 새 롤료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참조하여, 12월 1일에 2013년 차수 회장단과 사무국 임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롤료 발표회를 개최하여 마지막 10번째 수정, 교정 작업을 마쳤다. 한편 8월 18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 꾸르실료 주간단 회의에서는 이번 새로운 롤료를 주교회의에서 인준 받기로 하였으며, 2012년 안에 롤료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롤료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봉사자 형성교본(40-53쪽)에 게재된 ‘롤료의 흐름’의 내용 또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아쉬운 대로 마무리 하면서 이번 작업에 함께 한 봉사자들과 사무국 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참고로 새롭게 변경된 롤료의 제목과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롤료 제목과 내용

1. 이상

이 롤료의 주제는 인간으로서 완성된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인간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인간이 되라' 는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상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도록 하며 인간으로 완성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상' 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2. 생명의 은총

이 롤료는 인간에게 유일하고도 진정한 이상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 즉 은총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생명의 은총은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불러 모으시는 크리스천 이상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써 가장 값진 것이다. 하느님은 은총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최상의 수단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3. 교회 안의 평신도

이 롤료는 세례성사를 통해 은총을 받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평신도는 크리스천 이상을 삶에서 실천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느님께서는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을 사는 은총의 통로 · 구원의 통로' 인 교회를 통해 당신의 구원사업을 계속하고 계심을 설명한다.

4. 도움의 은총

이 롤료의 주제는 하느님께서는 그 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항상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그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롤료는 참가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롤료의 후반부에 '빨랑까' 의 개념이 소개된다.

5. 신심

'신심' 은 꾸르실료의 주된 롤료로서 사도가 되는 첫 단계를 제시한다. 인간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교회구성원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진정한 신심생활은 거룩한 척하고, 기계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은총의 삶을 살면서 깨어서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바탕을 두고' 삶 전체를 하느님께 향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6. 공부

'공부' 는 사도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서, 하느님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회심하여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불어넣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자신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7. 성사

이 롤료에서는 7개의 성사가 지닌 특별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성사생활의 풍요로움을 의식하게 한다. 또 성사가 은총생활의 원천이며, 하느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하느님 현존의 표징으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임을 깨닫게 한다.

8. 사도적 활동

'사도적 활동' 은 '신심', '공부' 와 더불어 사도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이다. '사도적 활동' 의 유일한 가치는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으로 세례성사가 요구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그분의 일을 계속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 방법은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친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9. 은총생활의 장애

이 롤료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은총의 장엄함을 제시한다. 기도, 고해성사, 영적지도,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접촉(공동체 활동)등이 은총생활의 장애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처방으로 제시된다.

10. 크리스천 리더

이 롤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은총 속에서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도 은총생활을 살도록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리더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리더들의 자연적, 초자연적 특성을 알아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몫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 리더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11. 환경의 연구

이 롤료에서는 크리스천 리더로서 자신이 살아 온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 은총의 삶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환경을 연구하고 전략을 세워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경 속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은총의 삶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환경을 정복하기 위한 꾸르실료만의 실제적 방법을 제시한다.

12. 크리스천 생활

이 롤료는 크리스천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천표 사용을 제안한다. 실천표는 꾸르실리스따가 해야 할 것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생활을 조직해 주는 계획이다. 롤료에서 사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완전한 신심으로 인도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한 것들을 설명한다.

13. 활동하는 교회 공동체

이 롤료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활동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바를 수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나누며, 우호집단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할 때 인간적 · 초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은 꾸르실료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14. 꾸르실료 이후의 삶

마지막 롤료로 꾸르실료 이후 크리스천 리더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팀회합과 울뜨레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롤료는 꾸르실료에서 체험한 것들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천 리더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해외성소장학회」를 소개합니다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해외성소장학회」는 교구장님이신 염수정 대주교님께서 적극적으로 권고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불모지였던 우리 선조들의 땅 조선에 첫 방인 사제가 탄생한 것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이역만리 동쪽의 변방, 작은 나라로 자원해 오신 프랑스 신부님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무려 6개월의 피나도록 고되고 힘든 여정을 거쳐 도착한 마카오! 말도 다르고 낯선 곳 우리민족의 첫 신학생 세분이 성소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자리, 그곳은 500만 신자의 거대한 한국천주교회로 성장시킨 '못자리' 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길러낸 요람이었습니다.

도입 반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꾸르실료운동」은 그 외형적 규모만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16일 베네딕토16세 교황 성하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이렇게 자성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복음화 실천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목말라하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 "같은 우리 안에 양이 되었으나" 그들을 돌보아줄 목자가 없는 불우한 이웃들이 동남아 곳곳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몽골 등등.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직 공산주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과, 불쌍한 동포들의 어두운 땅 북한.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할 이 많은 복음화의 대상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밀알이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고 어려운 나라 교회에 큰 나무를 길러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뜻있는 많은 꾸르실리스따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학회 운영과 성소 후원 방안

1. 장학회 발족의 목적과 기본 운영원칙

① 동남아시아 국가의 복음화에 사업을 돕기 위하여 그 나라 성소자들이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계획과 운영은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나 최종적으로 서울대교구장의 승인을 받고 운영하며, 운영 중이라도 변경이나 추가에 관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교구장의 재가를 받는다.

2. 장학회의 구성과 장학회비

① 1차적으로 서울대교구 꾸르실리스따를 대상으로 하되 후원회비는 1구좌 3,000원, 2구좌 6,000원, 3구좌 9,000원, 그 이상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입금방법은 은행계좌 자동이체 납부 방식으로 하며, 2013년 1월부터 시작한다.

② 다른 교구 꾸르실리스따와 꾸르실리스따가 아닌 신자 또는 비신자들이 참여를 원하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2013년도 시행 첫 해의 장학금 확보를 위해 1인당 1백만원 정액으로 소정의 금액이 모금될 때까지 특별후원자를 모집하기로 한다.

④ 처음엔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주간 산하에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해외성소장학회」 를 설치하여 실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사업 시작과 동시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구체적인 장학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3. 후원 대상자의 선정과 방법

아시아 국가의 사제 성소 희망 학생으로 해당교구 교구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입금계좌 ◈

- 우리은행 1005-702-159047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 신한은행 100-028-648253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 KB국민은행 479001-01-236522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문의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02-337-858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한상우 미카엘(의정부교구 후곡성당 · 서울대교구 남성 제243차)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이 마치 처음 대하기라도 하는 듯 강한 힘으로 다가오더니 지금도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봉사자로서 체험자들과 첫 대면하는 이 문구가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제야 조금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 어찌 잘 왔는지를 실천으로 응답하리라 다짐합니다. 새로이 거듭나려는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꾸르실리스따로서 구호가 아닌, 몸소 실천하려는 사도의 자세와 사명감을 잊지 않겠습니다.

꾸르실료를 체험한 지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 지금은 본당 간사로, 또 봉사자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뒤돌아보았습니다. 체험 직후 변화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열정으로 이어져 왕성히 활동을 하던 중 제가 속한 환경이 의정부교구로 분리가 되었고, 그 직후 의정부교구 청년 제2차 꾸르실료에서 교수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뛰어라"를 하였던 바로 그곳에서의 청년들과 역동적인 만남을 저는 저의 두 번째 체험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봉사자 연수를 마치고 남성16차 봉사에 임하라는 권유에 따라 얼마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또 얼마간은 간사로서의 의무감으로 봉사자 형성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2주의 형성 기간을 계기로 나태해진 저를 추스르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첫 봉사 때의 감동적인 순간을 다시 한 번 되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 후곡 본당에서는 처음으로 3분이나 참가자로 추천되어 저를 포함하여 무려 네 명이나 남성 16차를 체험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봉사로 합당한가?' 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삶과 일상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봉사자 직분을 행함에 있어 본당 공동체 안에서나 밖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형제, 자매는 없는지, 봉사 기간 동안 제 가족은 저의 빈자리로 인해 불편함은 없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아직 어린 두 아이를 챙겨야 했기에 환영식 당일 아침에는 집안청소며 설거지와 빨래까지 모두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남성 16차의 활동부 봉사는 육체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고단하지는 않았지만, 타부서 봉사자들과의 일사불란한 행동 통일, 일정에 따른 실시간 협력, 여러 설정에 대한 대응 요령, 특히 참가자들과의 빡빡한 일정 소화, 마치 군대식의 조직력 가동을 보면서 확실히 첫 봉사 때보다는 진일보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틈틈이 롤료도 청강하고 고해성사도 하면서 마치 다시 한 번 꾸르실료를 체험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아침 · 저녁으로 변화 되어가는 참가자들의 표정 속에서, 그리고 툭툭 가벼이 건네는 짧은 대화 속에서 참가자 모두가 정화되어 감을 분명히 알 수도 있었습니다. 식사도 복이 들게 맛나게 먹고 이제는 오히려 봉사자들을 배려하는 모습들, "수고 많으시죠?" 라는 말 속엔 진심어린 우정이 배어 있으니 첫째 날의 묘한 표정들은 다 어디로 가고 내일이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마치 이곳이 천국인양 즐겁고 기쁨에 넘치어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면서도 봉사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며 봉사하시는 형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모습이 저희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이시며 천사의 거룩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절로 부끄럽고 숙연해 지기조차 하였습니다. 성인되라는 말씀처럼 그야말로 성인처럼 봉사하는 봉사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해 봅니다. "봉사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봉사자로 다른 봉사자를 보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걸었던 3박4일 여정은 다시 또

한 번 나를 돌아보게 하고 4일 이후의 삶을 재조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채워진 것을 다시 나누어 다시 저의 부족함으로 채워 주시려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기다리고, 또 응답하는 용기가 제 안에 샘솟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우리는 꾸르실리스따라 불립니다. 꾸르실리스따의 신앙여정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여다 본 순례의 여정 길잡이는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이 여정에서 성모님을 비롯한 모든 성인께서 여러분을 힘껏 도와주실 것입니다."

DE COLORES ⊠

울뜨레야형 리더를 찾아서

(서울대교구 제6기 리더스쿨 논문 우수상 요약)

정한승 시몬(구로1동성당 · 서울대교구 남성 제312차)

리더스쿨에 들어오면서 왜 하필 리더인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되었다. 꾸르실료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복음화이며 이를 위하여 핵심그룹을 형성하여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이기에, 꾸르실리스따 개개인이 밀알이 되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면 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리더이니 '나를 따르시오!' 하고 나서는 것은 아니니까, 롤료에서 우리가 듣던 크리스쳔 리더란 말이 궁금해지게 된 것이다.

울뜨레야에서도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각 회원은 개개인으로 활동할 뿐 울뜨레야 차원에서의 활동은 따로 없으니, 그 가운데에 서 있다는 울뜨레야의 간사 역시 꾸르실리스따의 일원일 뿐이기 때문에, 울뜨레야에서 리더의 정의는 더욱 필요할 것 같았다.

교회에서 리더

교회에서의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베네딕토 수도회에서는 그 우두머리인 '당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고 있었다.

"베네딕토 수도원의 당가로 선정될 사람은 공동체에서 지혜롭고, 성품이 완숙하고, 절제가 있고, 많이 먹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부산떨지 않으며, 욕을 하지 않고, 느리지 않으며, 낭비벽이 없고, 오히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공동체를 위하여 아버지 같아야 한다." (베네딕토 수도규칙 31정 1-2 절, 안셀름 그륀,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 부록)

그런데 여기에는 흔히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영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자인 안셀름 그륀은 나의 우려와 달리 경영목표를 간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도회에서의 경영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창조물과 인간을 세심하게 다루는 데 있으며, 공동 작업으로 하느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안셀름 그륀,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 6)

교회에서의 리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표를 잘 알아야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꾸르실료에서 리더라면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조심스럽게 다가서본다.

꾸르실료 운동의 목적

꾸르실료 운동은 교회운동이기 때문에 교회와 똑같은 사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화' 이다. 복음화의 목적은 각 개인과 모든 사람의 내적 변화, 즉 회심을 말하며(기본사상 108), 회심은 마음의 쇄신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주는 것(기본사상 109)이다. 따라서 꾸르실료 운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꾸르실료운동은 그 고유한 방법에 의하여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본을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운동이다. 꾸르실료운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소명을 깨달아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복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핵심적인 크리스천 그룹을 조성하도록 촉진시켜 준다." (기본사상 111)

그렇다면 이 꾸르실료 운동의 목적 각 항목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겠고, 역사적으로 거기에 가장 충실하도록 노력하였던 지도자는 누구였는지 살펴본 다음, 그들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본을 살고 그것을 함께 생활함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본은 하느님 나라이다. 하느님 나라는 선물이며, 이미 이 땅에 씨앗이 떨어져 지금(nunc) 여기(hic)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물이 묻힌 밭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을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버리고 생활근거지를 옮겨 다닌 순종의 대가이다. 늦둥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대목에 이르면 진정한 순종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그로써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 가장 충실한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며 천국의 열쇠를 안겨주셨다.

개인적인 소명을 깨달아 수행함

하느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면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기도와 묵상의 방법을 배울 기회는 그리 흔치 않았다. 그런데 이번 과정 중에서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맛보고, 언젠가는 4주간을 통째로 수련하겠노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의 소명을 잘 수행한 인물로 요셉을 꼽을 수 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항상 하느님의 뜻을 살펴서 행동하여 이집트의 재상에 이르게 된다. 그는 기근에 시달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불러들이는 소명을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다.

요셉과 반대로 모세는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으로 끌고나오는 명령을 받았다.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하느님과 몇 번이나 승강이해 보지만 결국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사십년이나 민족을 이끈다. 그리하여 틈만 있으면 딴 짓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느리고서 꼿꼿한 지도자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한다.

핵심적인 크리스천 그룹을 조성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기름부음 받은 이들 가운데에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보통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산상수훈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길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내려면 각고의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주님을 향해 일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으로 다윗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젊은 시절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망을 다닌다. 그중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화장실을 찾아 들어온 사울을 옷깃만 자른 채 살려주는 장면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그의 경외심이 여실히 드러난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일생을 줄곧 전쟁으로 일관한 용사였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자요한의 마음이 단연 돋보인다. 세례자요한은 뒤에 오실 분을 위하여 일생 열심히 길을 닦았다. 자신은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면서 오로지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다. 그는 불의에 항거하다 어이없는 종말을 맞이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를 일컬어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다.

복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수고로움을 스스로 좋아해야 할 것이다.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공부하면서, 몸소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큰 사랑과 함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의 허점을 보았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손꼽히는 구약의 인물로 느헤미야를 들고 싶다. 느헤미야는 귀양살이 하던 중에 예루살렘이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장 달려가서 기도하며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다. 세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방해 속에서 성벽재건을 완성한데 이어, 율법서를 낭독하는 거대한 행사를 치름으로써 영적인 회복운동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다시 하느님의 땅으로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백성을 한 마음으로 끌어내는 능력은 하느님을 향한 기도에서 나왔고, 그의 청렴함은 그 기도를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두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지만, 특히 바오로 사도의 활약이 눈부시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가장 널리 펼친 사람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는 정열이 바오로 서간의 곳곳에서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그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냉철한 지혜와 오랜 성경 학습에 기인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열이 더욱 불탔기 때문일 것이다.

울뜨레야 형 리더

이상과 같이 살펴본 꾸르실료 운동의 목적에 적합한 성경속의 인물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장점들을 도출하자. 그들이 비록 나와는 천양지차의 지도력을 보인 위인들이어서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단순화시키는 전략만으로 그 방향성만큼은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베드로로부터는 하느님의 뜻을 지고지순하게 따르는 순박함을, 요셉

과 모세로부터는 하느님께 부여받은 자신의 소명을 실현하는 지혜를, 다윗과 요한으로부터는 일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느헤미야로부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을, 바오로로부터는 지대한 복음 선포의 정신을 대표적인 본받을 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여준 장점들을 엮어서 울뜨레야형 리더를 구성해보자. 울뜨레야형 리더는 "순박하면서도 지혜롭고, 고난 중에도 용기를 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베네딕토 수도회 당가만큼은 아닐지라도 울뜨레야형 리더의 모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억지로 뭔가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몹시도 다행스럽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상

울뜨레야형 리더의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나서,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꾸르실료 운동이 복음적이라면 꾸르실료 목적에서 도출된 리더의 조건이 복음말씀의 그것과 같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 리더가 되려는 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숨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남기셨던 것이다.

우선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내리신 명령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마태 10,7)였다. 복음 선포를 가장 첫 번째 임무로 주신 것이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 10,8)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복음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마태 10,18) 대개 슬기로운 사람은 영악하기 쉽고 순박한 사람은 미련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슬기로우면서도 순박해야 한다고 하시니 마치 해결하기 곤란한 숙제를 안고 있는 듯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그리고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맡기신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받던 질시라든지, 냉담자들의 교묘한 회피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다. 더구나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예수님께서 그 편견의 세상을 이기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셨다. 파견의 날 아침 묵상 때 들었던 이 말씀은 계속 어리버리하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리더에게 요구한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복음을 선포하여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헌신하여라.
슬기롭고 순박하여라.
고난을 받아도 용기를 내어라.

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울뜨레야형 리더의 조건과 문자 그대로 똑같다. 그러므로 꾸르실료는 복음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순박하면서도 지혜롭고, 고난 중에도 용기를 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이런 울뜨레야형 리더는 예수님께서 바라는 사도이면서, 어쩌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베푸시는 예수님

정준민 다니엘 (한남동성당 · 서울대교구 청년 제15차)

제15차 청년 꾸르실료를 마친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꾸르실료에서 체험했던 주님과의 만남을 되새기며 꾸르실료의 4번 째 날을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한없이 보잘것없는 저 자신을 조금 더 인정하게 되었고, 그런 나약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점을 좀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나약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3박4일의 꾸르실료를 체험하면서 묵상했던 '회심'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의 주제였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느껴왔던 주님의 부르심에도 몇 번이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꾸르실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제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만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데 아주 소중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첫날 입소하자마자 침묵이 시작되었고 약간은 불편한 마음에 신부님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아픈 곳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기도와 침묵을 통해 혼탁해져 있는 내면의 찌꺼기들을 가라앉힘으로써 우리의 환부와 대면하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으나 곧이어 희망에 차올랐습니다. 일상 속에서, 친구와 가족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직면하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상황들이 모두 주님께서 마련하신 치료를 위한 손길 이라는 것입니다. 더는 내가 힘들 때 혼자가 아니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고백성사를 하기 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는데 당시 제 마음은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하 강당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누워 계셨고, 성가와 묵상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 제가 뭘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처음과는 다른 "주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변하는 저 자신을 보며, 항상 주님께 투정만부리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름대로 당신께 봉사하겠다고 많은 것을 바쳤는데 왜 결과가 당신께 여쭸던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는 주님의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아주 어릴 적 일화가 떠올랐는데, 한번은 누나가 제 손을 펜치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수하려고 누나를 쫓아다니는데 그것을 본 어머니께서 차라리 자신의 손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분함을 이기지 못해 온 힘을 실어 어머니 손을 찍었고 어머니는 아파하시면서도 제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 내 손을 찍었으니 누나한테는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고 말씀 하시며 약을 바르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 죄송해서 누나와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렇듯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자신의 자녀 누구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던 용서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제 일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나약함과 과거의 악습으로 예수님께 상처 입힌 저의 모습과 그 모습마저도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해소에 들어가서는 복받치는 감정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드렸던 고백성사 속에서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날 형제자매들과의 진솔한 나눔과 마지막 날의 마냐니따 미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퇴소하기 전 모두가 백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한 명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믿습니다.” 라고 응답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는데 4일간의 체험에 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보잘 것 없는 저를 믿어주시는 예수님께 너무나 황송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자녀로써 충실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퇴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저를 발견하여 다시 주님께 당신만을 바라보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루는 저녁기도 중에 “제가 오직 당신만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고 아주 깊은 침묵 중에 소박한 삶 속에 주님을 닮는 삶을 살길 바라는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본당신부님과 꾸르실료 차수지도 신부님과의 면담 후 20대 초부터 인연이 있다고 생각된 예수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1년간의 지원기간 동안 3번의 피정과 매월 면담을 통해 제 원의를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많이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입회허가를 받았습니다.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서울대교구 청년 제15차 꾸르실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수많은 꾸르실리스따 선배님들과 봉사해주신 신부님 ·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꾸르실료를 통해 만난 사랑이 가득 넘치고 베풀 줄 밖에 모르는 예수님의 체험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 자신뿐 아니라 꾸르실료에 함께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변화를 꿈꾸는 모든 청년들이 꾸르실료에 꼭 참여하여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

눈을 뜨세요, 꿈을 깨세요.
어둠의 옷 벗고
광명의 갑옷을 어서 입으세요.
이 좋은 아침. 이 좋은 아침.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을 하루로 본다면
이제 새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의 해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복음화의 사명을 받은 ‘꾸르실리스따’로서
나의 아침은, 나의 시작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눈은 떴는지? 꿈에서는 깨어났는지?
어둠의 옷을 벗고 광명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평신도의 종신서원' 같은 꾸르실료

윤경애 사비나 (성모병원 · 서울대교구 여성 제337차)

꾸르실료 입소를 기다리는 한주간은 저에게 절대적인 지원자인 어머니의 몸 불편함, 응급실 방문 등으로 정신이 없었고 간식 챙겨주는 것 이외에는 별로 하는 것은 없어도 어쩐지 고3수험생을 뒤로하며 4일간 집을 비우기가 왠지 머리뒷꼭지가 땡기는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출발 전 5층에서의 신부님 강복과 간단한 예절에서 여러 지인들의 노력과 희생에 순간 눈시울이 불어지고 놀랍기만 했습니다.

입소 후 첫 지하 강당은 마치 신흥종교 부흥회나, 다단계판매회사 같은 분위기여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선배님들과 이별 때에는 그 옛날 신규간호사 시절 나이트 근무 혼자 할 때 이브닝 근무 번들과 작별하며 혼자 남아서 중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첫날 손신부님의 기도 속에서 먹먹해지던 가슴과 대침묵 속의 벙어리 가슴으로 긴장 속에서 지내다 입소 전날의 수면 부족을 메우느라 정신없이 곯아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의 이상을 돌돌히 고민해야 했고 가장 값진 선물 생명의 은총, 도움의 은총 롤료를 접하면서 하나 둘씩 저는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강의 후 다소 힘들어진 이후 힘들어 지려는데 강당 밖을 지나 계단으로 인도되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양팔기도 하는 사람을 보고 다리가 떨리고, 몸이 떨리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순간 십자가 형들의 예수님 모습도 보였지만 고통 속의 나의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성체 조배를 하며 그간의 죄를 하느님께 하나씩, 하나씩 토해내었고 불충분했던 내 믿음과 부모님, 남편, 형제, 자매, 아이, 동료, 상사, 부하들에게 그간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며, 앞으로 조배 때의 통회를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흘렸던 눈물만큼이 저의 허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내 선에서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교만 등이 있었으며, 늘 반복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중심이 되었던 저에게 참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냐니따'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를 외치는 울림이 있었어도 못 알아차리며 허둥지둥 대던 내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하느님이 그렇게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니 너희는 늘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셨건만. 이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가 이리도 준비 없이 정신없이 살며, 삶의 중심을 놓치고 살았구나' 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 꾸르실료 체험을 통하여 정말 하느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내 인생의 최고의 백을 얻었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나도 모르게 업무시간 중 외래병동 한복판에서 성호를 크게 그으며 삼종기도를 바치며 '데꼴로레스'를 입에서 계속 흥얼거리는 나에 또 한 번 놀라고 신비한 체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밖의 상황에 따라 순간 순간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언제나 그리스도 당신만을 믿습니다." 하며 언제나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렵니다.

수녀님들께 종신 서원이 있다면 꾸르실료는 우리 평신도들의 하느님을 향한 새롭고도, 강력한 종신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느님 뜻을 첫 자리에 두며 참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렵니다.

새롭게 세운 나의 이정표, 꾸르실료

장진수 율리아노(식사동성당 · 의정부교구 남성 제16차)

막상 꾸르실료 체험을 결심하고 나니, 3박 4일의 일정에 대해 너무도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물론이고 먼저 다녀온 아내마저 이것저것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기는커녕 가보면 안다고 손사래를 치는 모습을 보고는 성당 교육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유난을 떠는 건지 서운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선배들의 배웅과 사랑 속에 한마음수련원로 가던 날에는 왜 수십 년 전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기분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나타난 많은 선배님들과 봉사자님들의 얼굴에서는 엄숙함이 흘렀고, 이어지는 침묵의 시간은 너무도 묘한 기분이 들게 해서 첫날을 혼란과 갈등 속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침묵이 해제되면서 그토록 엄숙하던 분위기는 힘찬 데꼴로레스 노랫소리와 함께 밝게 변하였고, 유격대 교관처럼 느껴지던 봉사자님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은 또 다른 감동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분단원들과도 익숙해지고, 롤료를 듣고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너무도 새로운 영성을 쌓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도 갖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풀어질만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과 놀라움을 주는 하루하루를 경험하면서 왜 선배들이 꾸르실료를 다녀와야 진정한 신자의 성찰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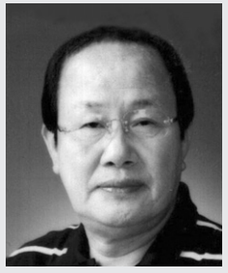
그동안은 고백성사를 하려해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어두운 방 안에서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자 그동안 한 번도 내어놓지 않았던 저 마음 속 깊은 짐을 모두 통렬히 토해냈습니다. 그 동안 나의 모든 행위가 위선이었으며, 거룩한 척 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언제 내 마음 깊은 속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너무도 후련한 심정이었으며, 날듯이 가볍고도 평온해지는 마음의 안정으로 너무도 기뻤습니다.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는 아직도 가장 큰 마음의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언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있는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진심어린 사랑과 열정을 준 적이 없었기에 선배님들의 기도와 빨랑까는 차라리 큰 충격이었고,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제 삶에 대한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춥고 어두웠던 새벽 시간, 아니 3박 4일 내내,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셨는지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도 가슴이 찡하여 눈물이 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잘못을 일깨워주시기라도 하는 듯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예수님의 방문에 정신없이 깊은 촛불 속을 마냥 달리기만 했습니다. 온몸이 헝클어지고 마음까지 어지러워 어떻게 강당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제야 흉해졌을 내 몰골을 가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선명하게 드러나는 족자의 글자가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에 들어온 이는 모든 위선과 허식을 집어 던져라!"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현실의 삶으로 돌아온 지금도 3박4일간의 놀람과 충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그날의 삶과 다르지 않도록 촛불과 음악, 봉사자들과 동기생들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봉사가 무엇인지 온 몸으로 보여주신 선배님들과 한만옥 지도신부님, 회장님과 모든 봉사자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삶의 환경을 하느님과 닮은 눈길로 사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꾸르실료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신 하느님과 그분과 함께 우리를 위해 있는 힘껏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은총의 삶 자체였던 꾸르실료 3박4일

윤정일 젤마노 (중앙성당 · 부산교구 혼성 제351차 동기회장)



출발하는 전날, 갑자기 독감을 앓게 되어 포기하고 다음기회로 미루어 보려고 본당 선배님들께 말씀드리니 하룻밤 자고나면 씻은 듯이 낫도록 기도할테니 염려 말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고나니, 정말 신기하게도 독감 증세가 어디로 갔는지 건강상태가 양호해졌습니다.

날아 갈 듯 한 기분으로 입소하기 위하여 차 안에 몸을 싣고 꾸르실료에서 지낼 마음가짐과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박4일의 여정을 편안한 쉼의 시간을 갖고 오자, "쉼"이라는 화두를 떠올리며, "휴(休)"는 인간과 나무가 친구처럼 자연의 섭리 안에서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고 풀이해 보며, 하느님 사랑 안에서 편안함의 시간을 갖자라는 생각으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감사와 감동과 열정의 꾸르실료였고, 은총의 삶 그 자체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롤료와 롤리스따들의 체험담을 통해 저는 그동안 무능했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믿겠다는 각오로 다짐하였습니다.

3박4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느님이 제게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은 메말라 있던 저의 신앙생활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고, 저의 삶에 작은 변화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도 제대로 성체조배를 해 본 적이 없던 제가 꾸르실료에서 경험한 성체조배는 주님께 무관심하고, 믿음에 소홀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하며 주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계기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한, 비몽사몽 들려오는 천사의 노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려는 순간 주님께서 제 앞에 계심에 당황하며, 준비 없이 주님의 발끝에 입맞춤을 하고,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자, 촛불 사이로 저를 반겨주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 뜨거운 감정에 마음이 북받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냐니따는 보잘 것 없는 저에게 더없이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뵙고, 제 안에 있는 이기심에 부끄러워 머리가 숙여지면서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했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입소 전 많은 선배님들께서 꼭 주님을 뵙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오라는 여러 말씀들이 부담스러웠고, 교육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으며, 선배님들의 철통같은 보안에 대한 오해도 이었지만 꾸르실료를 수료한 지금은 저를 추천해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과 꾸르실료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꾸르실료 교육을 통해 만났던 지도신부님, 봉사자들, 본당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생들 모두가 저의 영적인 스승이며, 주님께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준 제 신앙의 안내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살아 계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계획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고 저를 십자가의 도구로 써주신다면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꾸르실료의 체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신앙의 지표로 삼아 주님을 닮고 따르려는 열망으로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는 꾸르실리스따답게 소유의 삶에서 나눔의 삶으로 변화되어 은총의 삶이 되도록 살아보리라 다시금 다짐해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의정부교구 여성 제16차 꾸르실료를 마치고

유진숙 루시아 (호원동성당 · 의정부교구 여성 제16차)

내게 이번 여름의 끝자락은 참으로 귀한 선물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감동.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새록새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주님의 은총.

이번 16차 꾸르실료에 참가할 때쯤의 나는 어찌된 일인지 하느님, 주님,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며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나름의 심각한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꾸르실료 일정 특히, 롤료를 통해 불완전하던 생각은 정리가 되고, 피상적이던 복음화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나의 사명으로 강하게 인식 되어졌으며 나의 삶의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찾음과 동시에 나의 존재 가치, 자존감을 회복하는 내게 있어서는 역사적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결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수확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일정 둘째 날, 미사 중 평화의 인사 시간에 서로 돌아가며 포옹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피정에서도 몇 번은 경험 했던 것인데 그날은 중간쯤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생각이 들며,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인지를.

그 순간에 가슴 깊숙이 전달되며 감히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벅차오름,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통회, 그런 것들이 나를 휘감고 20년 넘게 살아온 그분, 시어머니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착하고 고운 분이지만, 그래도 함께하며 주고받은 상처로 인색하고 옹졸하게만 가졌던 내 마음. 그것은 마치, 내가 가야할 먼 산의 고지를 보지 않고 겨우 등산로 입구의 돌부리에 연연해하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나를 포함해 50명이 넘는 사람이 바뀌었으니 세상이 바뀌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단축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이 얼마나 큰 수확이며 결실이란 말입니까!

사랑으로 일치되어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 준 모든 봉사자들의 쾌거일 것입니다.

이제 파견미사에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세상이 언제나 나를 맞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파견하며 애처로운 마음을 뒤로하고 빈손으로 보내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빈손으로 그 세상을 맞이하려합니다.

빈손, 빈 마음이라야 성령께서 활동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 부르심은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꾸르실료의 신세계로 저를 부르신 주님,

주님 부르신 뜻이 온전히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3박 4일의 천국 여행기

백금선 프란체스카 (오금동성당 · 서울대교구 여성 제339차)

'언젠가 우리도 자연이 가는 그곳으로 돌아가겠지.'

뜰 앞의 앙상한 나무를 바라볼 때면, 자연의 오색찬란함과 신비로움도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가을과 겨울이면, 하느님을 찾는 깊은 사색 안에 숨고 싶고 어디론가 황망하게 떠나고픈 나의 움츠러든 마음을 이해라도 하듯이 나무는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서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여행 보내 줄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못 보내 줘도 3박4일 여행이니까 다녀와 봐?"라고 말했다. 무슨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

나중에 알고 보니,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할 교육에 도저히 참가할 시간이 없으니 '마누라 생각해서!' 라는 명목으로 나에게 떠넘긴 것이다. 그렇게 내 등을 떠밀던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죽는 것도 나더러 먼저 죽어 보라고 한 것 같은 남편의 모습이 얄미웠지만 '그래 죽어 주자.'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미리 죽는 것도, 미리 매를 맞는 것도 나에게는 또 다른 리더십의 시작이었다.

3박 4일의 여정 길을 위한 준비로 우선 내 삶의 자리와 마음을 정리했다. 누구보다도 질그릇 같은 인생의 실타래로 옭아 매인 나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를 버리고 비움으로써 이승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신발 끈을 동여매고 언제라도 뛰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에너지를 충전시켰다.

그동안 삶의 감옥에 갇힌 나를 풀어주시듯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두 팔로 나를 감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이사야 41.13) '늘 수고하고 고난의 삶으로 짐을 진 너를 4일만이라도 쉬게 해 주겠다.' 하시며, 날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친 내 손이 쉬도록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손수 마련해 주셨다.

'참으로 많이 부족한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두렵기만 한 내가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얻어 올 수 있을까?' 하며 시작한 9일 동안의 기도와 성체조배 안에서 선배 꾸르실리스타님들의 기도는 장미꽃다발이 되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었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회'에 보내고 아픔과 가슴 시림으로 가득 찬 내가 아들의 텅 빈 자리를 채우려고 추우나 더우나 항상 성당 끝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울던 '라헬'의 목소리를 들으셨나 보다.

내가 무슨 큰 위인이기라도 한 듯 송구스럽게도 간사님은 손수 운전을 해 주시고, 총무님도 정성스럽게 간식까지 준비해 주셨다. 게다가 차 안에서 은은하게 흐르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라는 노래가 나의 청각을 구슬프게 휘저어 나는 애써 준비해 온 간식조차 목이 메여 먹을 수 없었다.

동기들을 태우고 오는 차 안에서 나는 또다시 숙연함을 느꼈다. 미약하고도 모래알처럼 작디작은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한강변의 매서운 추위도 무릅쓰고 동행해 주신 선배 꾸르실리스타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는 수많은 세월 동안 내 영혼 안에 농축되었던 독소들을 뜨거운 눈물로 변화시켜 주었고, 나를 정화시켜 주었다.

친정오빠, 언니 같은 분들이 떠나고 남은 건 모두 낯선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47명의 영혼 안에 하느님 사랑이 현존하심을 느꼈고, 그 현존은 우리를 사랑의 동아리로 만들어 주었다.

손수 마련하지 않아도 진수성찬인 식탁들, 시간이 오가고 해가 뜨고 짐도 모두 잊어버린 채 당신께서 마련하신 천국의 음식을 찾아 내 영혼 안에 투영시킬 때마다 나는 이상과 순종과 사랑 안에서 '아, 나는 여태껏 누구였으며, 누구를 위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그동안 나는 나 자신도 몰랐던 황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할 뿐이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 큰 바다와 하나가 된다지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며, 삶의 질서도 방향키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아왔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몰아치는 험한 산속에 뒤집힌 채, 배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삶의 여정이었던 것이다.

이제야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다.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방향을 정리하도록 힘을 실어 주는 행복한 삶의 축을 발견하고, 내 영혼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굳세게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열망이 용솟음침을 느낄 수 있었다.

여태껏 도도하고 고상하게 혼자만 하느님을 알고 느끼려 했던 이기적인 삶의 방식들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세가 광야를 탈출하여 모든 계약을 새롭게 받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활기를 잃지 않고 오뚝이처럼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깐깐하고 완벽하기보다는 조금은 미련하고 바보 같겠지만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때야 비로소 해바라기 같은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한 위치에 도달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

신앙은 머리에 든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마음으로 내려 받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삶이라는 것을 또다시 마음에 새겨 본다.

많은 롤료 안에 참으로 보석처럼 짜인 생명의 양식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내 영혼 안에 계신 사랑하는 임과 함께 나를 정화하고 순례할 수 있었던 3박4일의 여정은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을 성모님처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라는 바오로 성인의 말씀처럼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 앞으로 끝없이 전진하라는 소명을 기억하며 꾸르실료의 정신으로 나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de colores! ultreya!' 그리고 빛과 함께, 빛을 향해, 하느님께서 주신 참된 보화, 진흙 속에 숨겨둔 진주 보석이 되어 하느님 계신 곳 사랑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 '굳세게 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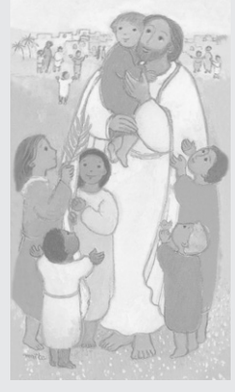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날마다 우리 삶 안에, 이웃 안에 살아 계시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동트는 새벽녘 영롱한 이슬처럼 '마냐니따'를 통해 잠속에 푹 빠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러 오셨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발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봉사자의 발에 친구를 해 버리고 말았다. 깨어 있지 못했다. 늘 깨어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결국은 딱 걸리고 말았다. 아, 게으른 내 영혼.

머리는 산발한 채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나를 하느님께 향하는 길로 이끌어 주신 선배 꾸르실리스타님과 봉사자님의 모습들, 지도신부님이신 최장민 도미니코 신부님의 전선야곡을 통해 나는 또다시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신부님 모습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그리워하던 아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선배님들이 보여 주셨던 사랑의 빨랑카와 기도의 장미꽃 길, 어두운 터널을 환하게 비춰 주던 촛불들은 천국 문을 열어 줄 '천국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그날에 꾸르실료의 마지막 '뛰어라'에서 함께 했던 '강남 스타일' 노래와 춤, 그 함성과 열기가 하느님 사랑의 메아리로 아름답게 울려 퍼지며 온 세상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한다.

"예수님은 천국스타일!"

데꼴로레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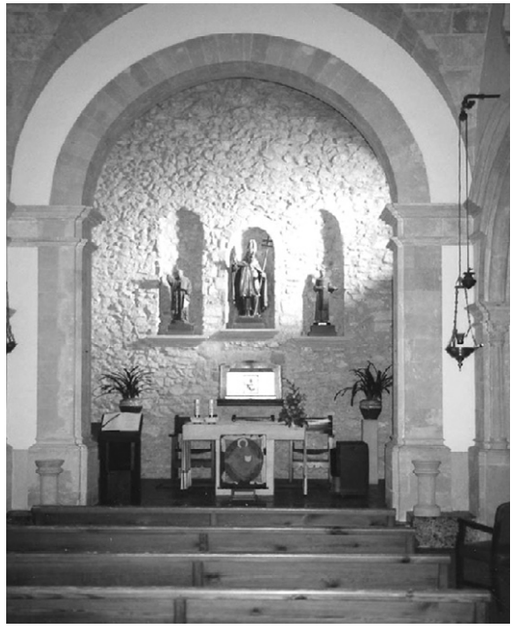


꾸르실료 발상지를 찾아서

세계 제1차 꾸르실료 발상지 – 〈마요르카 성 호노라또 수도원〉

'마요르카(Majorca)' 섬은 이베리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팔마' 섬이라고도 불린다. 공식적으로 하나의 교회운동으로 실시된 세계 제1차 꾸르실료는 1949년 1월 7일 마요르카 섬 몬테 룰리아노 데 란다의 성 호노라또(ST.HONORAT) 수도원에서 시작되었다.

마요르카 교구는 꾸르실료 운동을 시작한 첫 번째 교구이기도 하다. 마요르카의 대표적인 성당은 마요르카 대성당(팔마 대성당)이다. 1230년 지어진 이 성당은 거의 400년 만에 완성이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지중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장엄하며 아름답다.



성 호노라또(ST.HONORAT) 수도원 성당 내부

우리나라 제1차 꾸르실료 발상지 – 〈서울 성수동 성당〉

우리나라 최초의 꾸르실료는 1967년 5월 4일 서울 성수동 성당에서 영어로 실시되었다. 주한평화봉사단 단장으로 서울에 있던 미국인 '케빈 오도넬'과 필리핀 꾸르실료 운동에 깊이 참여하고 있던 '에드문도 카이모'는 우리나라에 꾸르실료 운동이 없는 것을 알고 유수철 신부, 김정수 신부, 이해남, 문창준 씨 등과 꾸르실료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마침내 한국에서 꾸르실료 운동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유수철 신부와 이해남 교수는 당시 서울대교구장 서리였던 윤공희 주교에게 꾸르실료 실시를 승인받았다. 윤공희 주교는 서울대교구장 명의로 필리핀 마닐라 교구장에게 서신을 보내 꾸르실료를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마침내 1967년 5월 4일 서울 성수동 성당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꾸르실료가 실시되었다.

한국 최초의 여성꾸르실료는 1969년 11월 6일 부산교구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여성 봉사자들이 없었던 관계로 남성 봉사 임원들이 꾸르실료를 진행했다.

제1차 꾸르실료 참가자와 봉사자 (1967년 5월 4일~7일, 서울 성수동성당)

추·천·도·서

● 가톨릭출판사 ●

세계 교회사 여행 1,2

세계교회사여행1

세계 교회사 여행 2

교회의 역사와 수많은 원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단 한 권의 책!

《세계 교회사 여행》 시리즈는 프랑스의 장 콩비 신부가 2000년 교회사를 원전들과 함께 집필한 책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때부터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던 중세까지 이야기를 담은 1권과 르네상스 시기가 시작된 근대부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재임한 2000년대 초반 현대까지 이야기를 담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는 이 시리즈는 교회사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공부하는 이들의 기대를 충족해 줄 것입니다.

장 콩비 지음 | 노성기 · 이종혁 옮김 | 반양장

1권: 154X224 | 640쪽 | 25,000원

2권: 154X224 | 760쪽 | 29,000원

빛의길

빛의 길

'빛의 길' 기도는 예수님 부활 이후의 행적들을 14처로 만든 기도로 서구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신심행위이며, '십자가의 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빛의 길' 기도를 김형주 선생의 그림과 함께 엮은 기도서로 파스카 신비를 온전히 느끼게 해 주어 그 안에 잠겨 들게 합니다. 부활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빛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니콜로 M. 로스 지음 | 김종수 신부 옮김 | 128X188 | 76쪽 | 5,000원

가라지가 있는 밀밭

가라지가 있는 밀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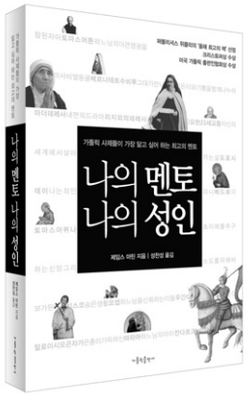
예수님의 가르침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유들,
이 비유들에 서민을 위한 눈높이 교육이 있다!

이 책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정리해 줌으로써 하느님 나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비유와 관련된 성화들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묵상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진실로 무엇

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유와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정진석 추기경 지음 | 154X210 | 224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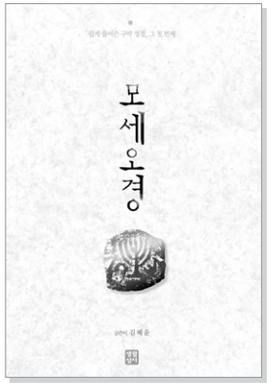
나의 멘토 나의 성인



멘토를 만나는 지름길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예수회 제임스 마틴 신부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성스러운 인물(聖人)들이 자신의 삶에 동행해 멘토가 되어 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자에게는 열여섯 멘토 성인이 있었는데, 그 성인들이 어떤 도움과 교훈을 주었으며, 어떻게 소중한 멘토가 되었는지 유머와 감동을 담아 소상히 들려줍니다. 그래서 독자에게도 멘토가 될 성인을 찾아보라고 촉구합니다. 풍요롭게 펼쳐지는 성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인들은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는 분이자,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걷는 진정한 친구임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마틴 지음 | 성찬성 옮김 | 148X210 | 600쪽 | 18,000원



김혜윤 수녀의 「쉽게 풀어 쓴 구약 성경 시리즈」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책!

김혜윤 수녀는 성경을 엄숙하고 딱딱한 책으로 오해하고 피하지 않게 하는 것, 실은 성경이 진솔하고 편안하게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에 덥석 손을 내밀고 있음을 알게 하고픈 갈망에서 지난 10여 년간 성경의 신학적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자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쉽게 풀어 쓴 구약 성경 시리즈'는 이러한 갈망에서 태어나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구약 성경 신학 입문서' 입니다.

'쉽게 풀어 쓴 구약 성경 시리즈'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등 성경 각 부분의 전반적인 개관과 신학 이론들, 최근 학계의 연구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줄기와 핵심을 '참고'를 곁들여 가며 섬세하게 풀어 줍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과 더 깊고 풍요롭게 성경 말씀의 참맛을 체험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모세오경

오경의 개념과 신학 이론들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책.

김혜윤 지음 | 152X225 | 216쪽 | 값 9,000원

역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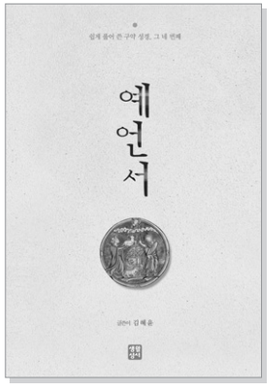
구약의 역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김혜윤 지음 | 152X225 | 176쪽 | 값 9,000원

시서와 지혜서

하느님의 가르침(율법)과 말씀(예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담고 있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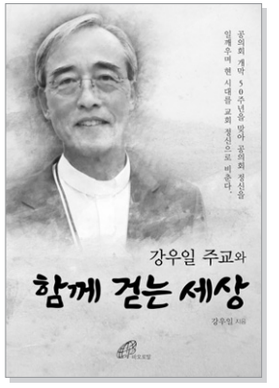
김혜윤 지음 | 152X225 | 232쪽 | 값 10,000원



예언서

현재를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였던
예언자들의 말씀 선포가 담긴 책.

김혜윤 지음 | 152X225 | 272쪽 | 값 12,000원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는 세상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인간의 삶!

교회가 울타리를 허물고 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해야 함을 강조해 온 깨어 있는 목자 강우일 주교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기념하는 신앙의 해에 우리 시대 사회 이슈인 환경, 여성, 평화, 생명 문제 등을 복음과 사회교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으로 비추어 본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이다.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데 대해 교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 본문 (가톨릭교회는 왜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가?) 중에서

강우일 지음 | 140X210 | 216쪽 | 6,000원

만남

예화로 읽는 사순시기 복음 묵상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 대축일까지의 매일 복음 묵상이다.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 가족의 일상, 그리고 직장과 성당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 우화 또는 옛날이야기 등이 복음과 어우러져 깊은 맛

을 더해 준다.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비춰준다.

매일의 묵상 시작 부분에 그날의 주제가 되는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여 말씀을 외우거나 품고 다니는 데 도움이 된다. 매일의 묵상 마침 부분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기록하는 란이 있어 사순시기 동안 소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볼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이웃과 함께 사순시기 여정을 의미 있게 걷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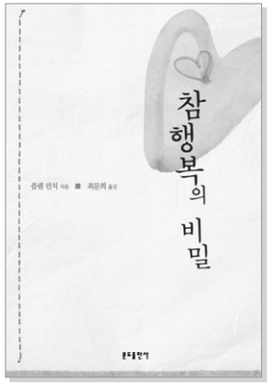
신은근 지음 | 128X188 | 196쪽 | 6,000원

● 분도 출판사 ●

그리스도 신앙-어제와 오늘
-교황 베네딕도 16세가 풀이하는 신앙고백

현대인이면서 동시에 참신자가 되려면, 과연 무엇을 그리스도 신앙으로 보아야 할까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황 베네딕토 16세 요제프 라칭거는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신앙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 밝혀 줍니다. 또한 비판적 사고와 신앙의 진실성에서 벗어나는 막연한 열성에 호소하지 않고, 신앙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며,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줍니다. 새삼 신앙 문제와 대결해야 하는 이들이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궁금한 이를 위한 이 책은, 1968년 초판 이래 10판을 거듭한 이 명저의 발언은 오늘도 빛과 힘을 그대로 발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요제프 라칭거 지음 | 장익 옮김 | 150X225 | 376쪽 | 15,000원



참행복의 비밀

플랜 린치 신부가 '비전'이라는 초교파적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래 16년 동안 개최해 온 '비전 세미나'를 바탕으로 만든 책. 저자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일러 주신 여덟 가지 참행복을 토대로, 오늘날 영적 갈망을 느끼는 수많은 이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내적 태도에 관해 설명합니다. 여덟 가지 참행복의 영성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독자들은 여덟 가지 참행복을 조목조목 이해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일상에서 이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 갈 것입니다. 또한 일찍이 알지 못했던 무한한 가능성에 눈을 뜨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꾸어 나갈 도구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책 말미에 있는 '작은 모임 길잡이'와 '연구 모임 길잡이'는 실제로 모임을 꾸려 기도에 참여하고 체험을 나누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플랜 린치 지음 | 최문희 옮김 | 140X195 | 268쪽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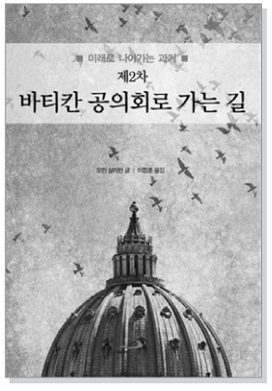
• 성 바오로 •

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데이비드 나이트 신부는 평신도 영성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성격을 현실적인 예화와 쉬운 설명으로 풀어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듯이, 많은 신심 깊은 평신도들은 수도회를 찾거나 수도회의 영성을 모델로 삼고 영성 생활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저자는 그 한계를 지적하며 진정한 평신도 영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이 고통받는 사람만 위로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뒤흔들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퇴색되고 맙니다. 이 책은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아 괴로웠던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한편, 주님과의 관계에서 타성에 젖어 안일함에 빠진 이들에게 갈등의 불씨가 되어 줄 것입니다. 꾸르실료를 받은 분들과 자기 신앙을 되짚어 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데이비드 나이트 지음 | 조민현 옮김 | 150X210 | 296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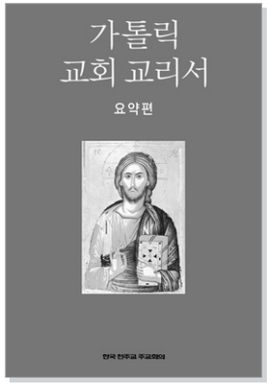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가는 길

이 책은 신앙의 해를 기념하여 읽으면 좋은 책으로, 교회의 두 가지 방향, 곧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과 이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에서 의견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2,500여 명의 주교들이 모여 20세기와 이후의 교회를 위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는 16편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의 짧은 네 회기 동안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또한 교회를 엄격한 교계 교회 모델로 본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를 단체적 특징을 지니는 친교 교회 모델로 보았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자는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애써 온 신학자들을 집중적으로 밝혀 줍니다. 교회의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께 권합니다.

모린 설리반 지음 | 이창훈 옮김 | 152X225 | 288쪽 | 12,000원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가톨릭교회 교리서(요약편)

'신앙의 해' 필독서인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쉽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교육의 교과서인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모든 이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황청에서 모든 지역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찬한 교리서의 휴대 참고서. 무엇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많은 항 번호들을 세심하게 지적해 줌으로써 교리서의 구조와 전개 과정과 내용과의 관련을 계속 유지하며, 교리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더욱 새롭게 일깨워 준다. 또한 교리교육과 관련한 성화(聖畵)를 활용하여, 대화 형식으로 교회 신앙의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모든 요소를 간결한 형태로 담고 있다.

글쓴이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 신국판 | 264쪽 | 값 9,000원

제18차 전국 주간단 회의

제18차 전국 꾸르실료 주간단 회의가 2012년 11월 17일(토) 오후 2시, 부산교구 교구청 5층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7차 주간단회의 이후의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각 교구의 사업에 대한 나눔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SNS, 네트워크가 발달한 세상에 발맞춰가기 위해 꾸르실리스따를 위한 웹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년 한국협의회 총회에 상정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에 있을 제44차 한국협의회는 2013년 3월 16일(토)~17일(일) 마산교구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간사 야외 울뜨레야

10월 6일(일), 간사 야외 울뜨레야를 개최하여 맑고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서 함께 야외미사를 드리고 식사와 레크리에이션도 하며 간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사 야외 울뜨레야에는 간사님과 사무국 임원 약 16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2013년 봉사자 연수

2013년 꾸르실료를 봉사할 봉사임원들을 위한 봉사자 연수가 지난 11월 3일(토)~4일(일) 양일간 있었습니다. 약 150명이 함께 한 이번 봉사자 연수에서는 꾸르실료 봉사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영성강의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등 3박4일 꾸르실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도 시행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 차수 회장단 연수

11월 18일(일) 2013년도 23개 차수를 이끌고 갈 차수회장단 연수가 있었습니다.

(남성 성인 10회, 여성 성인 10회, 청년 혼성 3회) 2013년 차수회장단 연수는 예수회 이훈바오로 신부님의 영성강의(신앙의 해와 꾸르실리스따)와 개정 롤료에 대한 논의, 사무국에 대한 건의사항, 파견미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수 회장으로서 개정 롤료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 회장단 연수가 끝난 후 12월 1일(토)에 롤료 윤독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제26대 꾸르실료 임원 워크숍

12월 15일(토)~16일(일) 양일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제26대 꾸르실료 임원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해를 보내며 2013년 교구 울뜨레야를 계획 중인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앙의 해를 보내며 실천적 과제의 하나로 추진계획 중인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해외성소장학회」에 대한 논의와 각 부서의 2013년 예산 및 활동계획을 나누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리더스쿨 수료식

지난 2월 25일 개강한 제6기 리더스쿨(교장 : 오유방 어거스틴 / 지도신부 : 김한수 디도)이 12월 8일(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수료식에는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의 특강과 미사, 개근상 · 우수 논문 시상식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리더스쿨은 꾸르실료 기본사상은 물론 이냐시오 영성강의, 성경 및 그리스도론, 사회교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1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정부교구 꾸르실료

1. 2011년 꾸르실료 체험자 84명이 10월 14일(일)송추사무국에서 일일피정이 있었습니다.

2. 제11차 팀인준이 11월 4일 송추사무국에서 있었습니다.
145명(기존 팀 35개, 신규 팀 7개 전체 42개 팀 참석)

3. 교구간사 송년 울뜨레야가 11월 10일(화) 송추사무국에서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힘찬 울뜨레야를 위하여 대표담당사제를 모시고 간사님들과 임원들이 함께 각자의 꾸르실료 발전을 위한 다짐을 하였고 간단한 여흥과 다과회가 있었습니다.

4. 11월 18일 청년 팀 인준이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4개 팀에 25명이 인준을 받았습니다.

5. 남성 제16차 꾸르실료가 11월 22일(목)~25일(일) 한마음수련원 피정동에서 있었으며 47명의 꾸르실리스따를 탄생시켰습니다.

6. 2013년 꾸르실료 차수 봉사자 연수회가 12월 8일, 9일 양일 중 1일을 택하여 송추사무국에서 75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7. 의정부 꾸르실료 사무국이 12월 14일(금) 의정부교구청 신청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주소 :우)480-848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2-4 (천주교 의정부교구청 내)
   전화 및 펙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산교구 꾸르실료

친교와 나눔의 바자회 개최

부산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 10일(10:00)부터 11일 오후 4시까지 1박 2일에 걸쳐 친교와 나눔의 바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손삼석 주교님께서 격려 방문 해주기도 하셨으며,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모든 임원들과 각 본당 간사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협조, 교구 내 많은 꾸르실리스따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꾸르실리스따가 봉헌한 정하상바오로영성관이 꾸르실리스따의 영성적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익금 전액을 봉헌하였습니다.

2012년 임원 및 간사 피정

지난 11월 10일(토)~11일(일) 1박2일로 꾸르실료 임원 및 간사 피정이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있었습니다. 약 90여명의 임원 · 간사가 참석하여 꾸르실리스따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무국과의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꾸르실료 운영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시간	일정
16:00	등록 및 찬미
16:30	본당에서의 꾸르실료이후
17:10	울뜨레야소개
17:50	신부님영성특강
18:40	저녁식사
19:30	타악기연수 및 데꼴로레스연습
20:10	사무국과의 대화
22:00	자유 시간
23:00	취침
7:00	기상 및 말씀묵상 산책
8:00	아침식사
9:00	꾸르실료의 정체성
9:40	꾸르실리스따가 지녀야할 자질
10:20	그룹토의(팀회합)
11:40	미사
13:00	점심식사

수원교구 꾸르실료

희망의 땅, 복음으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영적 쇄신을!

〈부제: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루카 17,10)〉

수원교구 2013년 중점목표

– 꾸르실료의 정체성 확립 및 내실 추구

– 솔선수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봉사자 양성 및 확충

– 본당 및 팀회합 활성화 – 팀회합 실시율의 제고목표 : 70% 이상

– 동북 3성 울뜨레야 활성화–독자적 운영을 위한 기틀 마련

2013년 꾸르실료 일정

차 수		세 부 사 항	
		교육일정	교육장소
남	166	3.14–3.17	교구 영성관
여	158	3.21–3.24	
여	159	4.18–4.21	
남	167	5.16–5.19	
여	160	5.23–5.26	
남	168	6.20–6.23	
여	161	6.27–6.30	
혼성	동북3성 4차	7.18–7.21	
남	169	8.22–8.25	
여	162	8.29–9. 1	
남	170	9.12–9.15	
여	163	9.26–9.29	
남	171	10.17–10.20	
여	164	10.24–10.27	

1월 20일 (연중 제2주일)

■ 복음 : 요한 2.1~11

사흘째 되는 날,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였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 복음묵상

오늘 연중 제2주일 복음은 우리를 갈릴래아의 시골 마을 카나에서 벌어지는 혼인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손을 씻기 위해 마련해 둔 물을 혼인 잔치를 위한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1,51) 사흘 뒤, 그러니까 요한이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서(1,28) 이레 뒤를 뜻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는 창세기처럼, 일곱 째 날에 예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기적과 함께 마무리되는(11절) 한 주간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혼인은 하느님과 그의 백성의 완전한 일치의 실현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호세 2,21-22: 이사 62,4-5).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이 혼인 잔치에 제자들과 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흥겨운 잔치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잔치 분위기를 돋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간단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때'라는 낱말은 요한 복음서에서 일반적으로 곧 성부께로 귀환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된, 즉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느님의 뜻이 반영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는 말로써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앞당기는 데에 참여하시며, 끝으로 더 이상 복음서 내용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자체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과방장과 물을 퍼 간 일꾼들이 표징의 증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마리아께서는 단지 "포도주가 없구나."라고만 하십니다. 자세한 상황 설명이라든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으시고 더욱이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하

느님! 그분 앞에 무엇을 말하리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마지막 말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설픈 광대놀음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증인의 영광의 자리에 선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물독에 물을 채워라."라는 말씀은 그들의 일상의 일을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표징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특별한 행위나 멋진 장면을 연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우리 일을 묵묵히, 조용히 수행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려 하지만 그냥 조용히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마리아와 예수님의 초대를 우리는 너무 멀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묵묵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윤대인 안드레아 전 서울대교구 부주간

2월 17일 (사순 제1주일)

■ **복음 : 루카 4.1~13**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 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 복음묵상

사순 제1주일 복음은 가, 나, 다해 모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심을 봉독합니다(마태 4,1-11: 마르 1,12-13: 루카 4,1-13). 올해는 '다해'로서 루카복음이 봉독되지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십니다. 구약성경에서부터 광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지요. 넘어지기 쉬운 장소,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시험한 장소인 동시에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곳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생활을 하기가 엄청 힘든 곳이기에 오직 하느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40일 동안의 단식을 지나 첫 번째로 빵(물질)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이 유혹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악마의 말의 시작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악마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 아버지께 충실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인간 편에서 (또는 악마든지)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 8,3을 인용하여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의 우선순위 맨 꼭대기에 하느님의 뜻을 두셨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모든 정권과 왕국을 자기가 받은 양 속이며 자신에게서 받는 조건으로 하느님 대신에 악마 자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신명 6,13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누가 이 세상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권력을 갖기 위해 그 다른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느님을 섬기심으로써 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지요.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가장 높으신 분은 한 분뿐이며 이분께 모든 것이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유혹은 자기가 유명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나머지, 기적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다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명 6,16을 인용해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마싸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마싸에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며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지요. 별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곧 유혹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행하고, 놀랍고 유별난 짓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루카 23,35)라고 할 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당연히 유혹을 받을 수밖엔 도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순 기간을 지내며 우리는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만큼 많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유혹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속에서도 하느님께 절대적으로 향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내맡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만을 통하여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윤대인 안드레아 전 서울대교구 부주간

3월 17일 (사순 제5주일)

■ **복음 : 요한 7.53 ~ 8.11**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 복음묵상

사순 제5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녀를 고발하던 위선에 찬 사람들도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실린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셨는데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는 간음한 남녀 모두를 쳐 죽이라고 했는데(신명 22,23-24), 그들은 간음한 남자는 쏙 빼고 간음한 여자만 붙잡아 데려온 것이지요. 사실 그들은 여자의 처형보다 오로지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워 그분을 처치하려는 의도로 고약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든 저들의 마수에 걸려들게 마련인 것이었지요. 즉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답변하신다면 그동안 줄곧 강조하신 하느님 자비의 복음은 빛을 바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답변하신다면 율법(레위 20,10: 신명 22,22-24)을 위반한 무법자로 몰리게 될 테니까요. 더욱이 당시 로마 정부는 유다인들로부터 죄인을 재판하고 사형시킬 권한을 박탈했기에 로마에 반기를 드는 자로 고발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시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신다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라는 예레 17,13과 연관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의 규정을 상기시키심으로써(탈출 23,6-7: 신명 17,5-7) 이 적대자들이

쳐 놓은 올가미를 피하시려는 것이며, 그 여자를 고소한 자들에게 그들 자신도 죄인임을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하여 사라지지요. 아무도,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 죄(성적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가련한 죄녀를 유일하게 단죄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뿐이신데 그분은 그녀를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시지요. 오직 미래를 밝혀 주시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윤대인 안드레아 전 서울대교구 부주간

4월 21일 (부활 제4주일)

■ 복음 : 요한 10.27~30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 복음묵상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하는 '성소 주일'입니다. 복음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단 네 절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짓는 말씀입니다. 비유가 거의 없는 요한복음에서 제대로 된 비유는 10장 '착한 목자의 비유'와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뿐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이 대부분인 반면, 요한복음에는 두 비유 모두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지요.

목자와 관련하여 10,1-18절에서 구약성경의 직접 인용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지도자들을 나쁜 목자로 묘사하는 성경 전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예레 23,1-8; 에제 34,1-10; 즈카 10,2-3; 11,4-17). 그들은 자기 양떼를

늑대에게 맡깁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하느님은 당신 백성의 목자로 언급됩니다. 유배를 겪으면서 많은 이가 의심을 품고 있을 때,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당신 백성을 돌보실 미래의 목자로 제시합니다(예레 13,17-23; 23,3; 31,10; 이사 40,11; 49,9-10).

착한 목자는 양 우리를 문으로 드나들고, 양들의 이름을 모두 알아 하나하나 그들을 부릅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에 앞장서 살기 좋고 먹이가 많은 곳으로 안내하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요한 10,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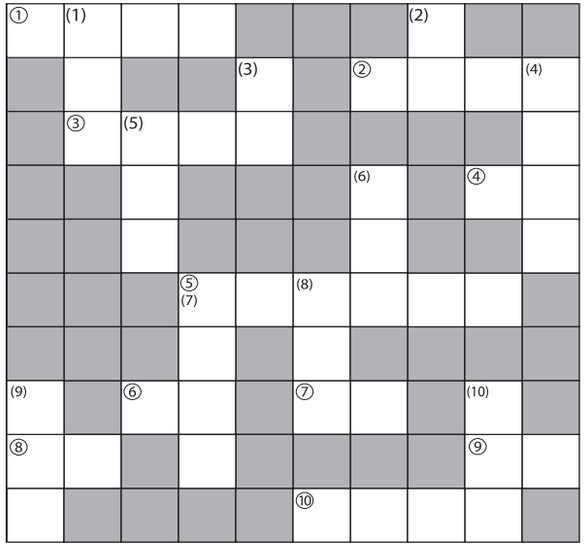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며 당신을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는 착한 목자'로, '양들이 드나드는 유일한 문'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양 우리를 문으로 드나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과 강도라고 규정하십니다. 양들은 낯선 사람들인 강도, 도둑, 삯꾼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요한 10,7-21 참조). 이런 수수께끼(?) 같은 비유와 설명 때문에 유다인과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요한 10,24) 하며 메시아인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기에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나에게 속한 내 양들이 아니라서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28)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요한 10,30)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으로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 하였고"(31절),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증명해 주는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32절)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광, 곧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는 많은 표징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돌에 맞을 짓이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사람들을 위해 해주신 좋은 일들, 가난한 이들에게 보여 주신 그분의 사랑, 병자와 고통 받는 이들에게 보여 주신 그분의 자비,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 구원의 선포 등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이런 '좋은 일들'의 의미를 깨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 뵙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징'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을 지니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며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고 받아들여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윤대인 안드레아 전 서울대교구 부주간

울뜨레야 제157호 가로 세로 퀴즈!



[가로열쇠]

① 사대교리(四大教理)의 하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인간의 죄를 대신 보속하였으므로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

② 하느님의 영웅'이라는 뜻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느님의 소식을 전하였던 3대 천사 중 하나

③ 예수성탄 대축일, 예수부활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그리고 성모승천 대축일을 통틀어 하는 말

④ 특정 수도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남자 수도자

⑤ 로마 바티칸에 있는 대성당으로 3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많은 순례자들이 주일 정오에 교황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곳에 모인다.

⑥ 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⑦ 조선시대에 사복시(司僕寺)에 속하여 말의 질병을 치료하던 직업

⑧ 2013년의 '뱀의 해'로 ○○년 이라 한다.

⑨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신앙과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학문적 노력

⑩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로 사도 신경으로 시작하여 주의 기도 · 영광송을 곁들이며, 성모송을 외워 나가는 기도

[세로열쇠]

(1) 살아 있는 이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2) 축제일 따위의 전날 밤 '전야'의 외래어. 창세기 최초의 여인 (예) 크리스마스 ○○

(3) 가톨릭에서 '일요일'을 이르는 말

(4) 성모님의 친척(사촌)이 되는 여인으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5)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와 신친(神親)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

(6) 2009년, 무궁화호를 대체할 목적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까지 모든 새마을호를 대체할 예정인 중장거리 열차의 이름

(7) 성모님께 바치는 일반적인 기도의 하나로서 11세기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기도이며 묵주 기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도문

(8)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극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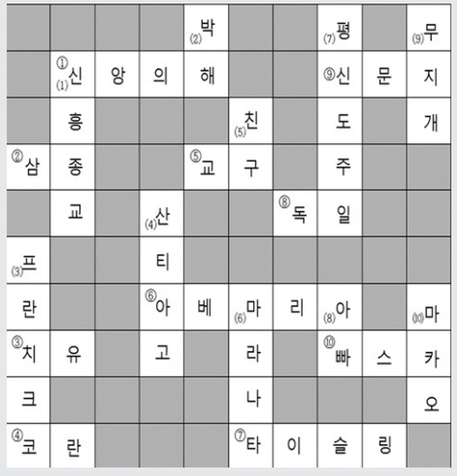
(9)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열 가지 계명

(10) 3박 4일 중 세 번째 롤료 제목. 교회의 능동적 구성원으로, 세례성사로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이 되고, 성직자와 더불어 한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는 자

- 가로세로퀴즈의 답을 2013년 3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가로세로퀴즈는 꾸르실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파일로 제출하실 분은 cursillo@catholic.or.kr 또는 pravda89@naver.com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실 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97-1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울뜨레야 제156호

가로세로퀴즈 정답과 정답자



김희자 글라라
(매교동성당 · 수원교구 여성 제63차)

신수정 카타리나
(신월동성당 · 서울대교구 여성 112차)

성영관 야고보
(C.M.C · 서울대교구 남성 제260차)

송제권 시몬
(가톨릭스카우트 · 서울대교구 청년 제15차)

임선희 요안나
(한남동성당 · 서울대교구 여성 제224차)

최은경 마리아
(대치2동성당 · 미국 뉴욕 영어 여성 1차)

축하드립니다! 소정의 상품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르멜 총서 발간

가르멜 총서는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을 더욱더 열망하고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외적 성장을 뒷받침해 줄 영성적 비전을 필요로 하는 한국 교회에 내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토대와 지름길을 보여주고 올바른 영성문화를 뿌리내리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성녀 소화 데레사', '성녀 에디트슈타인', '복녀 삼위일체의 엘리사벳',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및 신심', '신학 일반' 등 7개 분야에 걸쳐 20~21세기의 대표적인 가르멜 영성 신학자들이 작업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할 것이다.

가르멜 총서 신간안내

- 가르멜 총서 1.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창립사' 묵상 (신국판, 224쪽, 13,000원)
  가르멜수도회의 태동과 데레사 성녀가 가졌던 수도회의 창립 이념은 무엇이며, 시대를 초월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해주는 책.
- 가르멜 총서 2. 성녀 데레사의 기도 영성 (신국판, 720쪽, 37,000원)
  성녀 데레사의 '기도'에 영향을 준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 기도의 관점에서 성녀의 생애, 작품,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대인에게 올바른 데레사적 기도의 의미를 제시한 걸작.
-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 (신국판, 412쪽, 25,000원)
  성녀 데레사가 쓴 『완덕의 길』의 42장 전체에 대한 날카롭고도 심오한 묵상과 해설을 담고 있는 책.
- 가르멜 총서 4. 영혼의 성: 사랑의 길 (신국판, 92쪽, 5,000원)
  성녀 데레사의 대표작인 『영혼의 성』을 1궁방부터 7궁방까지 각 궁방의 핵심을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입문서.
- 가르멜 총서 5. 인간: 사랑의 열정 (십자가 성 요한의 가르침에 따른 인간의 삶) (신국판, 132쪽, 6,000원)
  십자가 성 요한의 영성적 가르침의 빛 아래서 살펴본 인간 존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시도한 책
- 가르멜 총서 6. 성녀 데레사의 그리스도 체험 (신국판, 584쪽, 30,000원)
  성녀 데레사 영성의 핵심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깊게 다룬 성녀 데레사의 그리스도론.
- 가르멜 총서 7. 귀양의 애가 (가르멜 수녀들의 북한 피랍기) (신국판, 372쪽, 15,000원)
  6 · 25 동란 당시 서울 여자 가르멜 수도원 설립자 수녀들이 겪은 죽음의 행진을 전하는 한국 가르멜의 소중한 역사서.
- 가르멜 총서 8. 데레사 가르멜 수녀의 신조(信條) (신국판, 198쪽, 12,000원)
  성녀 데레사의 신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가르멜회원들은 물론,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 특별히 기도를 벗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문제에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을 줄 것이다.

도서구입 문의 : 02 · 762 · 1194

기쁜소식 136-875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1가 109(성북로5길 44)
☎ 02 · 762 · 1194 Fax 02 · 741 · 7673 goodnews1989@hanmail.net